



봉사에 참여하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 각종 바이러스 질병들을 잘 이겨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전국의 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리 모두 적극 동참합시다. 이번에도 코로나19 잘 이겨 냅시다. 힘내라! 대한민국!



2021 01+02

KEPCO E&C

Family



통권 462호 2021년 1,2월호(격월간)

발행인 이배수
발행일 2021년 1월 10일
발행처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등록일 1983년 7월 20일
주 소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269(울곡동)

전 화 054-421-3114
홈페이지 www.kepco-enc.com

이메일 miru@kepco-enc.com

인 쇄 동아인쇄(주)(054-433-4454)

04 K-Message

임원 새해인사말

12 새해를 맞이하며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며

14 Brief News

가족친화 우수기업 국무총리 표창 수상
2020년도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선정
2년 연속 독서경영 우수직장 선정
MACST 상세설계 및 O&M그룹 1,500억 수주 달성
VISION 2030, 한기 미래비전 경진대회 개최
세계인권선언 72주년 기념 인권영화제 개최
KTL과 전력생산기술 세계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정부과제 협약 체결
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 고용촉진 업무협약 체결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로 코리아세일페스타 동참
LG화학과 글로벌 ESS 프로젝트 협력 협약 체결
코로나19 혈액수급 위기 극복을 위한 사랑의 헌혈 실시

18 이달의 한기인

유체계통설계그룹 박홍식 부장

20 팀소개

디지털융합실 융복합기술팀

22 Project & Tech

디지털트윈과 친환경교통 인프라구축 사업 협약 체결
국제핵융합실험로(ITER)와 그린뉴딜

26 자랑스러운 한기

가족친화 우수기업 국무총리표창

28 기고 수필

한기도담 어린이집 아이들의 보물찾기

30 심층취재

소담도담의 삶

32 포토에세이

제주에서 우연히 만난 일출

33 이달의 한컷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34 Shall We Meet?

드림창조협동조합 카페 바리스타 임주리 백예림

36 맛집 탐방

인디 : 향기로운 노란 향신료

38 술익는 마을 : 우리 술을 찾아갑니다

오미자 오미로제(OmyRosé)

40 낙화유수

기쁨의 실력

42 협력회사 소개

삼의공영

44 Culture

교양 『공정하다는 착각』 외

46 사보기획이야기

독자와의 수다



'사랑'을 사랑하여요(부분 발췌) / 한용운

온 세상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할 때에
당신만이 나를 사랑하였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여요.
나는 당신의 '사랑'을 사랑하여요.



이배수사장 신년사

관성과 통념의 벽을 깨뜨리고 비상하는 2021년

친애하는 한기가족 여러분

대망의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기가족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새해를 기원합니다. UAE 바라카, 프랑스, 인도네시아, 캐나다 등 해외와 영광, 울진, 월성, 고리 등 국내 현장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직원과 협력사 직원 여러분께도 안전과 건강의 염원을 담은 새해 인사를 전합니다.

한기가족 여러분

2020년 지난 한 해 우리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성숙한 모습으로 안정적인 성장기반 확보에 매진하였습니다. 인류사적 대격변에도 불구하고 해외시장을 향한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며, 글로벌 수준의 역량 강화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정부 주도의 전원개발사업 등 대규모 신규건설 사업기반이 약화되는 여건 속에서 O&M, 신사업, 신재생 사업을 중심으로 4,700억원 규모의 사업개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매출액은 제주해상풍력사업의 지연, 해외 신규사업의 어려움 등으로 당초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지속적인 영업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재무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기가족 여러분의 땀과 노력의 결실로써, 다시 한번 소임을 다해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마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기가족 여러분

2020년의 성과는 미래를 향한 우리의 노력과 방향에 확신을 갖게 해주었지만, 에너지전환 국면에서 굳건한 성장의 뿌리를 안착시키기까지는 여전히 어느 한 순간도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을 내려놓을 수 없음을 확인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신축년 새해에도 관성과 통념의 벽을 뛰어넘어 한기형 사업전환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새해 우리 한기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안정적 성장기반 확보를 위해 사업개발을 더욱 강화하고 매출을 확대해야 합니다. 한기가 그동안 안정적인 매출기반을 유지할 수 있었던 정부 전원개발계획 사업은 오는 2023년을 기점으로 매출절벽에 진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규건설 중심의 사업구조를 대체할 수 있도록 중·단기적으로는 열전소자, 해상풍력, 정부 R&D 등에서 사업기반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신사업, 디지털전환, 바이오매스, 폐기물자원화, 해외사업 등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합니다. 특히 정부 전력수급기본계획사업 비중의 축소에 대비해서 기획형·투자개발형 사업(Front Log)중심의 안정적 사업물량 구축에 전사적 역량을 결집해야 합니다. 에너지 전환이 큰 시련과 도전이라는 인식을 넘어서 새로운 기회와 시장이 열린다는 적극적 의미의 발상전환을 통해 사업 확대와 사업전환 연착륙을 전개해 나갑니다.

원자력본부는 다양한 노형의 신규건설 경험과 대규모의 기술인력을 기반으로 신사업 영역의 확대와 신기술 개발에 주력해야 합니다. 원전의 신규건설 사업영역을 넘어서 시운전·구매·사업주 기술지원(Owner's Engineering)과 원전 디지털 사업 및 신재생 사업까지 업역의 다변화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2021년에는 해외 원전 사업 수주 성공을 위한 노력이 총력적으로 전개되어야 합니다. 우선 이집트 엘다바(Eldaba) 원전으로의 진출을 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체코, 루마니아 원전으로 시장 확대를 이어 갑시다. 또한, 한기 독자적으로 ITER사업 역무의 지속적인 확대와 제3국형 원전 사업 진출을 통해 안정적인 매출기반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O&M사업은 한기의 성장기반으로서 수주·매출의 지속적인 영역 확대가 이뤄져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한수원 등 발전사의 연간 정비계획에 의한 소극적 사업방식을 넘어서 IoT기반 사업, 사이버 보안, 자산관리체계 구축 등 한기가 주도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지평을 넓혀 갑시다.

에너지신사업본부는 현재의 사업성과를 넘어서는 공격적이고 창의적인 사업개발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수년간 부진했던 해외사업에서 해외 EPC사업 수행경험을 기반으로 수주 노력을 전개해야 합니다. 특히, 에너지신사업본부 자체적으로 사업개발 인력·조직·시스템 전반의 분석을 통해 최근 수년간 부진한 수주 만회전략을 공격적으로 추진해 나갑시다. 석탄화력 설계경험을 기반으로 폐기물자원화, 바이오매스, 성능개선 사업에서 핵심경쟁력을 확보하고, 제주해상풍력 EP사업을 연내 착수함으로써 한기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동력을 선도적으로 견인해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저장과 공급안정성 연계사업 강화 측면에서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에너지관리시스템(EMS) 관련사업도 한기의 주력 사업으로써 에너지신사업본부가 주도해 나갑시다. 사업주 기술지원 등 컨설팅 역무는 엔지니어링 회사로서 한기의 미래사업에 있어 고부가 핵심분야로 자리잡도록 하고,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LNG전환사업과 신재생 비중확대 정책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자로설계개발단은 고유노형기술 기반으로 새로운 시스템의 개발에 주력함으로써 역량과 가치의 전략적 확대를 이룩해야 합니다. 원전의 미래 시장가치에 주목함으로써, 신재생과 분산형 전원의 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 중소형 원전과 하이브리드형 원전 등과 같은, 한기의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과 상품을 개척해 나갑시다. 국내 원전의 I&C 설비교체, 캐나다 원전의 설비교체 등 집약된 기술력과 경험을 기반으로 해외시장을 적극 발굴하고, 수소에너지 시대에 대비하여 지방정부와의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향후 수소분야의 사업수행과 기술개발의 중심기관으로 한기가 우뚝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규모는 작지만 지난해의 ITER사업 수주를 발판으로 열전달과 수송계통 관련 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인재육성을 통해 한기의 사업체질을 혁신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력기술원**은 에너지전환 이후 미래사업 발굴과 사업화를 위한 전략적 실행역량을 한층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의 K-뉴딜정책과 대규모 R&D과제에서 한기의 주도적 역할을 찾고 새로운 성장기회로 활용해나가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한기의 대형사업 기획 및 관리역량을 기반으로 향후 지방정부 단위에서 활성화될 디지털·그린뉴딜 사업의 기술적 구심체로서 한기 역량을 적극 발굴합니다. 한기의 향후 사업구조는 글로벌 시장 중심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면서 경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각 사업본부(단)은 ‘한기형 OJP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대상기업과 참여직원도 확대해야 합니다. 아울러 **경영관리본부**는 해외사업개발요

원, 시운전 및 O&M, 4차산업혁명과 AI응용, 신재생사업, 해상풍력, 사업금융을 주도해나갈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에도 더욱 내실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글로벌 경쟁환경에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 역량을 갖춰 나갑시다. **경영관리본부**는 회사의 제도와 절차가 사업개발에 있어 도전적 시도가 가능하고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 개선을 추진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디지털트윈, AI 중심의 업무환경 변화 속에서 글로벌 적용이 가능한 IT환경으로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언택트 비즈니스 모델을 신속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조직과 인력은 영시시스템은 현재와 미래의 사업환경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최적화해야 합니다. 중소형·투자개발형·기획형 사업의 확대 등 신재생 중심의 에너지전환 환경에 부합하는 조직체계와 인력운영 방식으로 혁신해 나갑시다.

끝으로 2021년도 경영목표 달성에 혼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새해에도 코로나19의 여파는 지속될 것이고 수주·매출의 목표달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영상황을 고려한 컨틴전시 플랜과 전사적 비용절감 등 다각적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평가, 청렴도, 동반성장 등 대외평가에서도 실무자·팀장·부서장·본부(단)장이 하나의 팀(One Team)으로서 적극적 참여와 관심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만들어내고 회사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기가족 여러분

메가 트렌드의 전환점에 서 있는 우리 한기에게는 칼날 같은 예리함이 담긴 호랑이 눈(虎視)으로 미래를 통찰하고, 지금까지의 성공의 틀을 과감하게 깨뜨리고 미래를 향해 비상하는 파벽비거(破壁飛去)와 우직한 황소걸음(牛步)과 같은 실행력으로 새로운 성공의 틀을 찾아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에너지전환 등 한기가 직면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위기 이전 상태를 회복하는 차원(Bounce Back)을 넘어 새로운 역량을 개발하고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한 단계 변화된 성공의 틀을 창조(Bounce Forward)할 수 있어야만 생존한다는 마음가짐을 새해 아침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한기가족 모두가 하나 되어 새로운 도약을 열어가는 2021년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4일

사장 이 배 수

以患爲利

이환우리(以患爲利)로 혁신하는 2021년

상임감사 신년사



친애하는 한기 가족 여러분,

새로운 소망과 기대가 넘치는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2020년은 코로나19와의 힘겨운 싸움의 시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회사는 흔들리지 않고 건강한 경영활동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회사의 '임직원 특별복무지침'을 성실하게 준수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한기 가족 여러분,

저는 2019년 7월 상임감사 취임사에서 청렴윤리 문화가 실질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열린 감사실, 경청하는 감사실, 신뢰받는 감사실이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기 가족 여러분이 솔선수범하여 반부패 및 청렴윤리 정책에 참여해 주신 덕분에 회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감사원 평가 자체감사활동 공기업 부문 '발전기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청렴리더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2020년에는 '전력그룹사 감사협의회' 개최, '반부패 청렴 업무협약' 체결, 경북 혁신도시 공공기관 합동 청렴시민감사관 회의' 개최 및 '청렴세상 내 손으로' 캠페인 등 반부패 청렴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경제성장률 하락과 4차 산업혁명, 에너지 대전환 및 한국형 뉴딜 정책 아래 상임감사로서 회사가 더 나은 경영성과를 달성하는 지원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하였습니다. 그 결과, 협력사 용역수행 보안관리 운영개선 컨설팅 감사 등을 실시하여 불합리하거나 불완전한 회사 규정을 개선 및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도급사 부패취약분야 점검 예방감사 등을 통하여 임직원과 하도급사와의 부패방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협력사 및 고객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감사를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새해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면서 세계 경제 개선 속도가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

라 더 많은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기회로 삼아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상임감사로서 청렴윤리 문화 선도뿐만 아니라 회사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감사목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에너지 전환정책과 회사의 미래비전을 고려한 감사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회사 사업 현황 및 중장기 경영전략을 자세히 검토하여 추진 과정에서 걸림돌을 미리 제거함으로써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하겠습니다. 임직원들이 걱정하는 미래 먹거리에 대해 에너지 전환정책에 맞는 사업을 개발 및 수주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직원들이 안심하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경영효율 향상을 위한 개선사항을 꾸준히 도출하겠습니다.

회사의 규정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해당 부서와 허심탄회(虛心坦懷)하게 소통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사항을 도출하겠습니다. 또한 기술개발, 설계개선, 설계정보 보안강화,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예산누수 방지 등을 통하여 회사의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셋째, 사전컨설팅 위주의 예방감사에 주력하고 적극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사후감독 및 징계 위주의 감사가 아닌 사전컨설팅 위주로

감사 방향을 정하여 예방감사에 주력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면책 제도를 강화하고 소극행정을 타파하여 사회적 가치실현의 밑거름이 되도록 이바지하겠습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다산(茶山) 정약용 선생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외침(外侵)이 아니라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의한 민심(民心)의 이반이다.”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우리가 힘들게 이룩한 경영성과가 '나 하나쯤이야'라는 안일한 생각 하나로 한순간에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2016년 9월 청탁금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 4년이 지난 지금, 정약용 선생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한기 가족 모두가 솔선수범하는 청렴리더로서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굳건히 해나가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한기 가족 여러분,

2021년에 코로나19는 반드시 종식될 것입니다. 우리는 소처럼 독심 있고 성실하게 우리의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앞당긴 4차 산업혁명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디지털 및 그린 뉴딜 정책을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삼아 혁신을 선도하는 한전기술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4일
상임감사 정 일 순

경영관리본부장

현실은 냉철하게, 미래는 열정으로,
다시 뛰는 한기

2020년을 돌아보면 역사상 유례없는 변화와 위기가 교차한 다사다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세상으로 구분할만큼 대변화에 대한 실제적 경험이 이루어진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방역지침을 묵묵히 준수하면서 소임을 다해주신 한기가족 여러분께 마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기가족의 일원이 되고 여러분과 함께

처음 맞이하는 새해라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도 특별히 의미있게 다가옵니다.

직원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넉넉함이

가득한 새해를 기원합니다.

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악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정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우리는 마치 비이커 속의 개구리 모습처럼 최악의 상황이 올 때까지 위기를 의식하지 못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외면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동안 공기업으로서 비교적 안정적 사업환경에 안주하면서 비이커 속 개구리의 모습이 바로 한기가 아니었는지 냉철

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최악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대응해 나간다면 두려움과 위기는 사그라들 수 밖에 없습니다. 위기를 정의하고 인식했다면 다음 단계는 극복해 나가는 최선의 방법과 대안을 찾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정리하면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리스크(Risk)가 아닌 미래의 가능성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화에도 자주 등장하는 네이비 실(Navy SEAL)이 최강의 탐이 된 것은 평소 에 극한 상황을 설정해 계속 훈련했기 때문입니다. 미리 최악을 두고 연습을 해본다면 고통과 두려움 같은 감각들이 둔해지며 진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도 훌륭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탄탄한 준비를 갖춰나간다면 세계시장에서도 일기당천(一騎當千)의 용장으로서 맞서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 수 있을 것이고, 새해는 한기에게 보다 큰 가능성이 열리는 시간으로 기록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2021년 신축년(辛丑年)은 신성한 기운을 지녔다는 흰소의 해라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농가의 큰 일꾼이었던 소는 은근과 끈기, 여유로움이 우리 민족의 기질과 잘 융화하여 우리 조상들은 소의 성품을 아끼고 사랑해 왔습니다. ‘황소걸음’으로 흔들림 없이 전진하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한기가족 여러분

새해에도 우리는 한 겨울 새벽의 칼바람 같은 위기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기업이 살아있는 한 위기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위기에 대한 인식과 도전의 투지마저 잃어 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도전정신과 불굴의 투지로 미래를 준비하는 2021년이 되어야 합니다. 영화 스타워즈 제국의 역습에서 요다는 두려움을 없애려면 그것에 이름을 붙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추상적이고 관념적 두려움을 눈에 보이는 실제로 만들고 그것에 구체적 이름과 정의를 붙이는 방법을 통해 생각보다 쉽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에 이름을 붙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의도적으로라도 두려움의 본질을 명확하게 드러냄으로써 실제적 문제로 현실화

원자력본부장

패러다임 전환으로
신성장동력 창출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무엇보다 한기 가족 모든 분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경자년(庚子年)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多事多難)했습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말은 바 소임을 다해주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자력본부는 에너지 전환 및 코로나19라는 불확실한 환경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2021년 도를 이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첫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원자력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에너지 전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미래 성장동력을 적극 모색 하겠습니다.

우리의 강점 분야인 원전 설계기술을 바탕으로 O&M 사업과 해체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정부 뉴딜정책과 연계하여 디지털 신사업, 시운전 분야, 기자재 구매분야, 종합사업관리 및 재난 대비 SOC 사업 등으로 꾸준히 우리의 업역(業域)을 확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수력발전 등 해외 신재생 시장도 새롭게 개척하여 우리 회사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해 변환된 언택트 사회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환경 속에서 국내외 사업개발 및 사업 수행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차별화되는 업무방식과 혁신적인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회사는 언택트(Untact) 환경에 대비하여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인프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도, 비대면 업무방식을 포함하여 변화된 환경 속에서 틀에 갇히지 않는 창의적인 사고로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날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헤엄친다는 대봉역풍비(大鵬逆風飛) 생어역수영(生魚逆水泳)이란 고사성어처럼, 전 직원이 지혜와 열정을 하나로 모은다면 지금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Global Leading Energy Solution Partner로의 비상을 함께 해 나갑시다.

2021년 1월 4일

원자력본부장 진 태 은

2021년 1월 4일

경영관리본부장 함 기 황

에너지신사업본부장

재도약을 견인하는 2021년

사랑하는 한기가족 여러분,

2021년 신축년 희망찬 새날이 밝았습니다. 올해는 부지런하고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소의 성향과 고결함과 깨끗함의
상징인 백색이 더해진, 백우의 해로서 직원 여러분 모두가
계획했던 일을 묵묵히 이뤄내시고 공기업 직원으로서 청렴과
고매함을 겸비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20년은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연초부터 전 세계적 대유행병으로 아직도 진행중인 코로나
19(COVID-19)로 인해 사회 모든 영역에서 힘든 한 해였습니다.
특별히, 국가간 방역 강화로 인한 교역의 감소 및 장기화된 사회
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 경제 침체로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이 있
었습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 화상회의 확대 등 언
택트 문화가 새로운 뉴노멀(New Normal)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
니다. 또한, 코로나로 전 국민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례없는 긴 장
마 및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 적지 않은 피해를 입는 등 안타까
운 일들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 우리 에너지신사업본부는 1,100억의 수주성과를 이루어냈습
니다. 2021년에도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당선으로 미국의 파리기
후협약 복귀 및 신재생에너지분야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
고 있으며, 정부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한국판 뉴딜정책
등 친환경, 저탄소 등 그린경제로의 전환 가속화가 진행되고 있고
우리 본부는 '변화와 도전으로 미래성장과 재도약을 견인하는 본
부'라는 슬로건으로 성장·미래사업으로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확
대하는 사업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중점육성분야인 풍력을 비롯한 태양광 및 수소 등 미래형 에너
지 기술개발을 통해 에너지 전환 선도기술을 확보하며, 우리의
핵심기술인 엔지니어링을 기반으로 성능개선, 내진안정성평가, 환

경개선 및 시운전 분야 등 화력O&M 사업분야의 전문인력을 육
성하고 핵심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으며 기술은 끝없이 바뀐다. 아무리 어려
운 난관에 부딪혀도 반드시 방법이 있음을 믿고, 아무리 하찮은
적이라도 우리와 다른 기술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한
시도 잊지 말라' 중국을 제패한 쿠빌라이칸의 유언 중 일부입니
다. 예나 지금이나 기술은 끝없이 바뀌었지만 요새는 그 기술이
바뀌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가속, 확대되어가는 4차산
업도 전력산업 분야에서 이미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다양한 관련 기술접목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
가 세계 발전소 설계기술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회사이지만 현
재에 만족한다면 언제 우리의 위치가 변화될지 모릅니다. 수주기
반의 사업으로 생존하는 우리로서는 사업분야에서 늘 세계 최고
의 기술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기술력은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닌 오랜기간 각고의 노
력과 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우리회사의 사훈인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히 일하자'라는 자세로 끝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
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현재 직면한 어려움을 한 마음으로,
집단지성의 힘으로 변화와 혁신을 이룬다면 현재의 어려움을 이
겨낼 뿐 아니라 도약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난 한 해 힘든 여건 속에서도 많은 바 소임을 훌륭히 수행해 준
임직원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내 희망하
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건강과 희망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1년 1월 4일

에너지신사업본부장 김 동 규

원자로설계개발단장

즐풍목우(櫛風沐雨)의 2021년

작년은 팬데믹이 전 지구인의
발을 묶어버린 해였습니다. 최
전선에서 바이러스와 싸우고,
어려움을 버티고 극복하기 위
한 많은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
을 보며 '즐풍목우(櫛風沐雨)'
라는 말을 떠올립니다.

성경에도 등장하는 대홍수는
비슷한 시기의 중국 요(堯)임

금 치세에도 있었고, 하늘에 닿을 듯한 홍수가 산을 둘러
싸고 언덕을 넘쳤다고 합니다. 이런 환란을 막으려고 시작
한 요의 치수사업은 순(舜)대로 이어져 그 책임을 후일 우
임금이 된 문명(文命)이 맡습니다. 그는 13년간 전국을 떠
돌며 큰 강 300곳과 지류 3,000곳을 다스려 '다시 없을 태
평성대'인 요순시대가 정착됩니다. 그동안 세 차례 집 부근
을 지나면서도 들르지 않을 정도로 사업에 매진하느라 피
폐해진 그를 장자 천하(莊子 天下) 편에서 목자는 "장판지
에 살이 없고 정강이 털이 다 빠지며, 폭우로 머리를 감고(
沐甚雨, 목심우), 바람으로 머리를 빗으며(櫛疾風, 즐질풍)
나라의 터를 닦았다.'라 하여 즐풍목우(櫛風沐雨)는 그런
각고의 노력을 기리는 말이 되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앞으로 가기 위해 앞선
사람들의 헌신적 노력과 구성원들의 자발적 동참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을 맞아
'전쟁에서 승리는 반복되지 않으니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라'는 손자병법의 말을
마음에 새기며 새해를 출발했던 게
어제 같은데 벌써 신축(辛丑)년
새해를 맞습니다. 한기 가족 여러분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는
새해를 기원합니다.

한기는 에너지 기술을 통하여
국가 에너지 안보를 지키고 온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
록 임무를 부여받은 국가기관
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이
미 닥쳐온 변화는 우리에게 뛰
어넘어야 할 커다란 도전을 주
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라
도 우리가 같이 변하고 노력한

다면 모두 뛰어넘어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노
력이 하나씩 결실을 맺고 계속 발전하는 우리의 모습을 그
리며 한기가족 여러분과 함께 새해 벽두에 즐풍목우의 각
오를 다지고자 합니다.

새해는 신축년, 신성한 흰 소의 해라고 하니, 그 신성함이
우리 주위를 떠도는 팬데믹을 비롯한 온갖 나쁜 기운들을
몰아내어 우리나라에 상서로운 기운이 가득하고 한기 가
족 여러분의 가정에 풍요와 사랑 그리고 행복이 함께 하시
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1월 4일
원자로설계개발단장 김 신 환

2021 辛丑年 새해를 맞이하며

새로운 감동들을 “소의 느린 호흡처럼 들이쉬고 내쉬어 나가고 싶다!”



2020년에는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한 기억이 별로 없다.

다들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다 보니 사람들의 표정도, 마음도 제대로 못 읽은 것 같다. 2천명이 넘는 직원들이 한 건물에서 생활하는데도 방역과 개인위생에 신경쓰는 개개인의 노력에 대단한 생각과 다른 차원의 애사심이 느껴지기도 한다. 2021년은 웃는 입꼬리를 바라볼 수 있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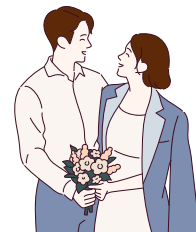
<전기계측기술실 김푸름 사원>



회사에 입사한 후

회사에서 제공하는 한기마늘과 기숙사에서 지낸 시간을 뒤로 하고 이제는 새로운 안식처를 찾아 떠나야 하는 2020년의 마지막 달을 보내며 아쉬운 마음이 크다. 동기들과 돈독한 관계를 만들 수 있었던 큰 이유도 같은 곳에 살아 언제든지 쉽게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기숙사를 볼때마다 아침을 못 챙겨먹는 동기들에게 아침에 삶은 따뜻한 달걀을 주머니에 넣어주던 제 모습, 구운 고구마를 손에 쥐어주며 언 내손을 녹여주었던 2020년의 동기들의 모습이 생각날 것 같다. 2021년은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시작하는 동기들을 포함한 직원들 모두!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고 배불렀으면 좋겠다.

<기계배관환경기술실 손아림 사원>



올해 드디어 농작 각 필출에 성공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중남미의 카리브해가 아닌 제주도로 허니문을 다녀와야 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사랑하는 아내와 부모님을 모시고, 남국의 이국적인 바다와 식도락을 즐기러 떠나야겠다. 그날까지 모두 화이팅!!!

<기술전략실 정보자료팀 정범진 대리>



앞뒤가 똑같은 2020년,

입사한지 2년, 의미는 많지만 코로나가 많은 것을 앗아가게 된 한해가 끝나간다. 코로나 덕분에 자주 찾아 뵙지는 못했지만, 가족간의 안부를 자주 묻게 되어 심적 거리는 가까워질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더욱 각박해지고, 점점 더 우울한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슬퍼지는 한해였던거 같다. 신년에도 근처 사람들이 항상 건강하고, 더 웃을 수 있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기술전략실 기술기획팀 최창섭 사원>

월성 가동원전 현장 근무를 마치고

본사 복귀하여 미래전략연구소 기술전략실로 전근 발령을 받았다. 가동원전 안전 예타, 새만큼 재생에너지 실증연구사업, 원전산업 글로벌시장 맞춤형 기술개발사업, 21년도 지식서비스사업 등의 신규 과제 기획하느라 예기평, 산기평, R&D 전략기획단으로 마구 마구 뛰어다니다보니 벌써 12월이다. 160억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디지털 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 인프라구축과제 협약을 체결해서 기쁘고 보람있는 한해가 되었다. 기축년에는 코로나19백신이 우리의 옛 일상을 찾아주길 간절히 기원한다.

<기술전략실 기술기획팀 양인수 차장>



2021년 소더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하여 회사 대내외적으로 참 힘든 해였다. 부디 2021년은 소의 우직함과 같이 코로나를 비롯하여 회사 대내외적으로 힘든 시기를 극복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토목건축기술실 박호석 과장>



2020년은

내 인생 가장 유의미한 해였다

연초 코로나-19 대유행 직전 아슬아슬하게 결혼식과 이탈리아 신혼여행을 마쳤고, 아름다웠던 베니스의 달빛을 닮은 아들 이준이를 해가 지나기 전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었으니 말이다. 결혼과 출산으로 만들어진 급작스러운 환경의 변화는 참 정신없으면서도 행복하고 감동적이었다. 부모님 발바닥과 내 발바닥을 맞닿아 걸어보듯 부모님 젊은 시절을 현재 나와 빚대어보며 가족과 사랑에 대해 깊이 되뇌어보는 시간도 가졌다. 2021년 흰 소의 해, 올해 얻은 새로운 감동들을 소의 느린 호흡처럼 안정적으로 들이쉬고 내쉬어 나가고 싶다.

<기계배관기술실 최영환 대리>



2020년 코로나가 잡아 먹은 시간이었지만

그 만큼 가족과 이야기할 시간이 많은 시기이기도 했다. 싸우고 토라지기도 했지만 행복한 시간도 많았던 것 같다. 코로나가 준 값진 시간이었는지도 모른다. 모든 시간이 소중한 만큼 이미 지나가 버린 일에 서운해 말고 2021년에는 시간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면 좋겠다. 1분 1초 아끼고 아껴서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잘하는 한해가 되면 좋겠다.

<원전안전센터 내진검증팀 이정하 대리>



김천에서 운영하는

텃밭을 분양받아

도시 속 농촌을 즐겼던 2020년이였다. 농사는 하나도 모르는 초보였지만, 밭에 나가면 이것저것 알려주시는 많은 농부선배님들 덕분에 여러 농작물들을 키워보는 경험을 할수 있었다. 최근에는 배추와 무를 재배하여 김장까지

했는데 맛있게 익은 김치를 얼른 맛보고 싶다. 2021년에도 분양받아서 1년동안 배운 농사지식으로 더 많은 작물을 키워보고 싶다.

<기계배관기술실 유인화 사원>

KEPCO E&C N e w s

가족친화 우수기업 국무총리 표창 수상

회사는 임직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가족친화 우수기업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회사는 2012년 ‘가족친화인증기관’ 최초인증 이후 올해는 재인증과 동시에 그 공로를 특별히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까지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일, 가정 양립과 행복한 일터 조성’이라는 주요 공적에 힘입은 것으로 선도적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직원들 삶의 질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가족친화 우수기업 국무총리 표창 수상

2020년도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선정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은 2020년 7월 25일부터 시행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시행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공동 주관으로 비영리 단체와 협력관계를 맺고 1년 이상 사회공헌 활동을 한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제도다.

회사는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교육기부, 업무성격을 반영한 전력설비 교체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선도적으로 수행한 실적을 인정받았다.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선정

2년 연속 독서경영 우수직장 선정

2년 연속 ‘독서경영 우수직장’으로 인증받았다.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최로 독서친화적 기업 등 우수한 독서경영 성과를 보인 기관을 평가하여 인증서를 부여하는 제도다. 회사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독서경영 우수직장으로 선정된 것은 독서경영을 통해 조직과 개인의 소통 활성화, 창의력 증진 등의 성과를 냄과 동시에 저자 초청특강, 독서경영 포인트 제도 시행, 김천시민과 함께하는 열린도서관 운영 등 경영진 주도의 독서친화적 문화조성 추진 실적에 힘입은 바 크다. 이배수 사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독서경영으로 임직원 모두와 조직의 역량을 키워 일류 기업문화를 가진 공공기관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년 연속 독서경영 우수직장 선정



MACST 상세설계 및 O&M그룹 1,500억 수주 달성

MACST 상세설계 및 O&M그룹 1,500억 수주 달성

12월 28일 한수원으로부터 ‘중대사고관리전략 이행을 위한 다중방어 대응설비 (MACST:Multi-barrier Accident Coping Strategy) 계통연계 상세설계 용역’을 수주하였다.

이번 수주로 2020년 O&M사업그룹 신설 이후 최초로 당해년도 1,500억원 이상의 수주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용역을 통해 사고관리능력 평가 및 사고관리전략 수립 등 관련 기술력을 확보함으로써 극한재해 사고관리 분야에 대한 국제경쟁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리라 기대한다.

VISION 2030, 한기 미래비전 경진대회 개최

에너지전환 이후의 회사 사업전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미래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한기 미래비전 경진대회’ 본선이 12월 17일 3층 영상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배수 사장 제안에 따라 CEO중심 하향식(Top-Down) 사업전환 전략실행을 구성원 관점에서 상향식(Bottom-Up)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전사 공감대 확산과 실행력 제고를 목적으로 이번 대회는 약 20일간 공모가 진행되어 총56팀 154명의 직원이 참여하였다.

이배수 사장은 이번 경진대회가 경영의 장으로서의 의미를 넘어 실무에 적용하고 새로운 사업모델로 정착시키는 노력과 관심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VISION 2030, 한기 미래비전 경진대회 개최

세계인권선언 72주년 기념 인권영화제 개최

11월 18일과 19일 양일간 세계인권선언 72주년(12.10)을 기념하여 ‘세계인권선언 72주년 기념 2020 인권영화제’를 개최했다.

이번 영화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상영관 입장 전 손소독 및 발열체크 등 개인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켜 진행되었으며, ‘좌석 거리두기’로 영화 한 편당 50명 이내로 입장인원을 제한하였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함기항 경영관리본부장은 “앞으로도 직원들의 인권감수성 향상과 인권친화적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지역사회 내 인권문화 견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인권선언 72주년 기념 인권영화제 개최

KEPCO E&C N e w s

KTL과 전력생산기술 세계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회사는 11월 13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과 국내 전력산업분야 강소(중소)기업의 국제공인 품질확보 및 수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 안산 KTL경기분원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이배수 사장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정동희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에너지·전력생산기술 산업을 영위하는 강소(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글로벌 동반성장을 위해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이배수 사장은 “앞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국내 중소기업들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글로벌화에 앞장 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KTL과 전력생산기술 세계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정부과제 협약 체결

회사는 12월 24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재생에너지 디지털 트윈 및 친환경 교통 실증연구 인프라 구축” 정부과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정부과제는 2020년11월부터 26개월동안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새만금추진단), LS Electric(주), 한양대학교 등 총 5개의 기관이 협력하여 수행하는 기술개발 과제로 총사업비는 약304억원(회사 수행분 15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회사는 정부정책에 따른 재생에너지 마이크로 그리드 종합설계 및 운영(O&M) 기술을 확보하여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번 기술개발을 통하여 그린뉴딜 정책을 이행하는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정부과제 협약 체결

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 고용촉진 업무협약 체결

회사는 11월 27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에너지 전문기술 산업분야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함기환 경영관리본부장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남용현 고용촉진이사를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은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고용의무이행을 넘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을 약속했다. 회사는 지난 8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의 일환으로 장애인고용 종합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지원자 응시자격 완화, 장애인 특별채용 등 에너지 전문기술 분야의 장애인 진입문턱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추진해왔다.



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 고용촉진 업무협약 체결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로 코리아세일페스타 동참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로 코리아세일 페스타 동참

회사는 11월 12일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에 동참하는 취지로 김천 평화시장에서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인과 위축된 지역 경제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회사는 지난 2015년 김천 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한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자매결연 협약을 15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꾸준히 방문의 날 행사를 진행하는 등 국가적 어려움에 따른 전통시장 살리기에 적극 동참해 왔다. 이외에도 지역 특산물 판매 행사 진행, 지역 소상공인 제조 물품 적극 구매 등 지역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LG화학과 글로벌 ESS 프로젝트 협력 협약 체결

회사는 11월 4일 경북 김천 본사에서 김일배 에너지신사업개발처장과 LG화학 신영준 상무를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LG화학과 “글로벌 ESS(Energy Storage System) 프로젝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ESS 사업에 필요한 사업개발 자료의 상호 교환 및 협력을 통해 글로벌 사업 개발의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에 ESS 기술발전을 위한 방안을 함께 연구하게 되었다. 이번 협약 체결로 회사는 급속히 확장되는 글로벌 ESS 시장에서 EPC사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 LG화학은 배터리 제작 및 공급에서 더 나아가 시스템과 연계된 독립적 사업수행 계기를 마련하였다.



LG화학과 글로벌 ESS 프로젝트 협력 협약 체결

코로나19 혈액수급 위기 극복을 위한 사랑의 헌혈 실시

11월 3일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과 함께 사랑의 헌혈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헌혈참여자 부족으로 국가적 혈액수급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개인별 마스크 착용, 체온체크, 헌혈대 간 거리두기, 손 소독 등의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되었다.

2004년부터 헌혈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온 누적 참여자는 현재 2,600명으로, 이번 행사에는 임직원 및 지역주민 60여명이 참여하였다. 직원들이 무상으로 기부한 헌혈증서는 직원가족 및 사회단체 등과 연계하여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이 소중한 생명을 이어가도록 쓰여질 예정이다. **E&C**



코로나19 혈액수급 위기 극복을 위한 사랑의 헌혈 실시

유체계통설계그룹 박홍식 부장

1995년 12월 박홍식 부장은 영광 5,6호기 설계업무 차 한국원자력연구소(KAERI) 파견근무로 대덕에 내려왔다.

원설단 사업이관 이전 시절이다. 첫인상은 드넓은 주차공간에 탄복했다고. 그 당시 용인본사는 천변까지 주차할 정도로

고층이 심했다. 대전이 고향인데다 도마동 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것은 좋았지만 주말부부로 한동안 가족과 떨어져 생활했다. 그의 인생 스토리를 듣고 비선형(non-linear)적이란 느낌을 받았다. 인과와 선후의 연결이 복잡계처럼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앞뒤와 사실 체크 대신 ’있는 그대로(as-be)‘ 봐주세요” 그런 야구감독의 시그널도 나중에 받았다.



먼저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CVCS)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300도 정도의 뜨거운 냉각재를 식혀서.....” 아니 그 온도에서는 물이 부글부글 가만있지 않을 터인데, “물은 1기압일 경우 100도에서 끓지만 원자로 물은 158기압의 고압이므로 300도에서도 끓지 않아요.” 냉각재는 맹물 아닌지 의문을 던졌다. “산소가 다량 함유된 물은 원자로, 증기발생기 등 금속 재질의 부식을 유발하고 방사성 불순물 생성 원인이므로 물속 산소를 제거하기 위해 냉각재에 수소도 주입하고, 원자로 내 핵반응도와 출력을 조절하려고 붕소라는 화학제도 넣습니다. CVCS에서 필터와 이온교환기를 이용하여 냉각재 이물질 제거하고, 원

자로 냉각재계통 물을 적절히 빼거나 집어넣어 가압기 수위를 적정, 유지해야 합니다.” 최근 박부장은 안전주입계통/정지냉각계통, SIS/SCS 설계분야로 영역을 확장했다.

박부장은 서울대 원자핵공학 전공이다. 이 분야를 선택한 인연을 물었다. “보문고교 물리 선생님이 인격도 훌륭하시고 실력도 출중했습니다. 대입 학력고사 예상 문제를 20개 선정하여 심화학습으로 가르쳤는데 그중 10문제가 고스란히 입시 문제로 출제되었어요.” 그 선생님 영향으로 물리와 수학에 매료되었지요.”

인터뷰어는 약 회전이 걸린 취미 구를 던져 보았을 뿐인데 그는 이때구나 ‘팡’하고 맹렬히 배트를 휘둘렀다. 대전시민에게 한화 이글스와 얽힌 사연을 물어보지 말라는 금기를 깨트리고 말았다. “2008년 무렵 김인식, 김성근 감독이 한화이글스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야구의 정수를 선 보였어요.” 박부장의 야릇한 흥분은 알고 보니 KAERI 야구감독, 한기야구부 총무부장을 거친 내력이 있었다. 그가 사랑하는 한화이글스의 16번 하주석, 호세 칸세코가 40홈런 40도루를 달성한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전설 이야기는 그로부터 난생 처음 듣는다. 야구만 나오면 귀는 쫑긋, 눈매가 심장하게 반짝인다. 인터뷰 마지막, 꿈을 꾸다며 어떤 걸 하고 싶는지 물었을 때 “야구장 볼보이를 꼭 하고 싶어요”라는 소망을 듣고 말았다.

삼성동 회사 시절 선배로부터 ‘전화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다. 설계와 엔지니어링을 한창 배우던 시절 모르면 선배를 찾아가 신분을 밝히고 얼굴보며 질문하라는 뜻을 그는 지금도 새겨본다. “설계 엔지니어링은 혼자만의 작업이 아닙니다. 동료들을 포함하여 여러 팀워크와의 콜라보(collaboration)입니다.” 분야책임자로서 신입사원을 맞으면 스포츠 동우회에 가입하여 타 기관, 타 부서 사람들과 어울려 대면활동을 넓혀라고 주문한다. 그러면 설계 안목이 열리고 인터페이스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지금에서 보는 박부장은 과묵한 분위기를 띄운다. 낯선 사람을 어려워하는 성격이지만 대학시절 CCC(Campus Crusade for Christ)로도 활동했다. 위로 누나 4명을 둔 불교 집안이지만 대학 1학년 때 선교회 선배로부터 복음을 받아 기독교를 믿었다. 1983년 석사장교 시절 면회 시 부모님에게 성경을 가져와 달라는 부탁으로 은근히 신앙을 고백했다. 부친이 돌아가신 탈상 3년 후 성경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했다.

평생 돌아보는 가치는 무엇일까? “중3 때 어머니가 어떤 연유로 그런 말씀을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하지만 ‘너는 사람이 왜 그렇게 인정이 없니?’ 하는 그 한 마디가 지워지지 않았어요. 늘 그걸 회상하며 인정을 베풀며 타인을 배려하는 삶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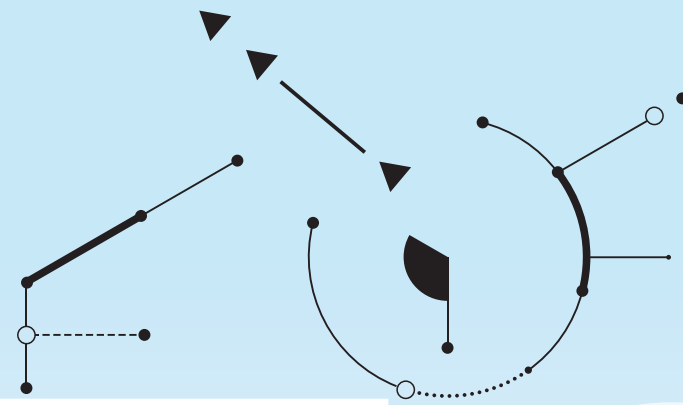
살려고 노력해요.” 그는 부친 유품을 정리하다 이문열 삼국지 10권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삶의 행로에서 돌이켜 보면 후회할 일인지, 판단의 길목에서, 그 책을 묵상한다. 특히 관우의 원칙, 의리, 도리가 마음에 들었다.

야구 매력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그 규칙의 복잡성 때문이지요, 그 속에 정직과 공평이란 숨은 뜻이 있지요.”

부인과는 CC(Company Couple)로 맺어져 사랑을 쟁취하였다. 아바의 ‘The winner takes it all.’ 노래와도 연관된다. 아들은 신소재를 전공하여 취업 준비중이고 딸은 대학원 불어불문학에서 언어학을 열공 중이다. 원자력공학-크리스천-야구-삼국지 등 서로 다른 구질의 공이 묘한 궤적을 그리며 들어와 캐처는 글러브에 척척 받기 어려웠다. 올해 반부패 청렴 한기인 상을 수상하였으니 ‘축하합니다’로 마무리한다. [E&C](#)



디지털융합실 융복합기술팀



2020년 7월 신설된 디지털융합실은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가상현실 (VR/AR), 디지털트윈, 드론 등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플랜트 엔지니어링의 디지털 변환 관련 추진전략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를 맡았다.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 변환 관련 요소기술의 고도화와 함께 신규 사업모델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융복합기술팀은 디지털 융복합 플랫폼 기술개발, 디지털 트윈 및 가상현실 (VR/AR) 관련 기술개발과제 수행 및 사업화를 추진한다. 에너지전환으로 국내 신규건설이 어려운 환경에서 디지털 융복합기술과 설계 엔지니어링 노하우 연계를 통한 플랫폼 기반의 시스템 구축과 디지털 관련 신성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디지털 변환을 이끌어 나가는 융복합기술팀원을 소개한다.



송정욱 팀장

융복합기술팀을 이끌어나가는 열정적 팀장으로 화려한 입담과 깔끔한 업무처리로 팀 대내외적으로 인지도가 높다. 또한 팀원간의 화합을 매우 중요시하며, 열린 사고방식으로 팀원들과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도록 한다. 디지털 변환 기술을 기반으로 한 팀의 방향성을 가지고 팀을 이끌어 가고 있다.



김광철 부장

설계 시스템 전산화 및 데이터 기반 통합 설계시스템 전문가이며 중대사고 관리 머신러닝 및 시각화 기술개발을 포함한 여러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다양한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팀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고 있다.



박근영 과장

화력발전 배관분야에서 플랜트 설계시스템 구축, 3D 모델통합, 간섭검토 등의 업무를 담당했으며 현재는 가상현실(VR/AR) 관련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가정에서는 두아이의 아버지로서, 회사에서는 팀원으로서 일과 가정에 모두 충실히 임하고 있다.



이남경 차장

융복합기술팀의 브레인을 담당하고 있다. 항상 호기심 가득 차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넘친다. R&D 기획 업무를 담당하다가 신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관심이 많아 현재 융복합기술팀 창립 멤버로 참여하였다.



김대호 대리

EDB 및 지능형 2D CAD 시스템 개발을 담당했으며, 융복합기술팀으로 발령 이후 새로운 업무 환경에 적응 중이다. 신기술에 관심이 많으며 항상 배운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 또한 팀원으로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노력한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구축의 마중물

디지털트윈과 친환경교통 인프라구축 사업 참여



재생에너지의 간헐성·변동성·예측 불확실성 그 솔루션을 만들어 간다.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 기반구축 사업’ (이하 본 사업)은 20년 11월부터 2년 2개월 동안 정부와 지자체 출
연금 360여억원을 투입하여 인프라 구축과 실증 R&D를 추진하
는 사업으로 총괄과제와 4개의 병렬형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새만금추진단(이하 예기평)이 주관기관
인 1세부과제는 305억 규모로 우리 회사를 비롯하여 LG Electric,
한양대학교, 이노싱크턴설팅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 회사가 수
행할 159억원 규모의 주요 역무는 ①종합사업관리 ②실증단지
인프라 개념설계 ③실증단지 기본인프라 설계 ④전력망 및 70kV
케이블 설비 구축 ⑤수전해와 수소 출하설비 구축 ⑥디지털트윈
시스템 구축 기술 지원 ⑦인허가 기술 지원이다.

7월초 예기평과 전라북도가 공동 기획한 본 사업은 3차 추경에서
그린뉴딜의 세부 추진 사업으로 선정되어 과제별 상세 RFP 기획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본인은 4세부과제 기획에 참여하였다. 사업
전체에 대한 종합 브리핑시 약 200여억원 투입하였다.

1세부과제의 인프라 구축 부분이 눈에 확 들어왔다. EPC 특성을
갖고 있어서 일반적 연구개발과는 다르고 우리 회사가 참여하여
이를 수행한다면 궁합이 잘 맞겠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고 연구개
발이 아닌 사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참여하여 좀
더 현실성 있는 세부 인프라 기획, 종합사업관리, 인터페이스 관리
등을 기획 단계에서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자문 범위를 넘
어서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7월 중순 어느날, 예기평 새만금추진단장께서 지난 기획자문과정
에서 제시한 의견과 별도로 의견을 나누고 싶다고 연락하셨다.
원자력산업회의에 참가 중이었던 때라 당일로 부산-서울-부산을
오가야 하는 일정 속에서도 그 동안의 엔지니어링 경험과 지식에
기초하여 재생에너지 FOAK (First-of-a-Kind) 실증 사업 추진과
정에서 예상되는 핵심 리스크인 종합사업관리, 개념설계, 주요 설
비들간의 통합과 연계, 인터페이스 관리 등에 대해 설명 드렸고,
이번 사업 성공을 위해 기획단계에서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 허심
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나 나중에서야 이날의
면담이 한기의 참여를 사실상 확정짓게 만든 결정적 순간임을 알
게 되었다.

왜 우리회사를 주요 협력 파트너(참여기관)로 선택 했을까?

우리는 대규모 인프라/플랜트의 종합설계와 구축 관련 엔지니어
링화에 강하다. 즉 주요 설비와 계통들간의 통합(Integration),
연계 요건(Interface Requirement)의 분석과 구현, 종합사업관
리(PM/CM), BOP 설계, 인터페이스의 조정과 관리, Documen
-tation 등에 강점이 있다.

아쉬운 점은 동료 엔지니어들이 지나치게 원전과 화력발전소 중
합설계만으로 특화, 정형화되어 있다는 점이고 새로운 일들 특히
FOAK 연구나 사업에 큰 두려움을 갖고 망설임이 크다고 생각한
다. 안정되고 잘 갖추어진 사업수행 환경 하에서 발전소 종합설계
를 오랜 기간 수행하다보니 자연스럽게 형성된 문화때문이다. 하
지만 지금은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격변의 시기이다. 에너지
전환 정책, 디지털 변환(DX),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정책이 하루
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는 시기이다. 한 발 앞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자만이 살아남는 환경임도 잊어서는 안된다.

그린뉴딜과 수소경제, Micro Grid 실증 연구를 선점하라!

회사는 그린수소 기반 마이크로 그리드 관련 다수의 연구개발과

제와 사업을 수행중에 있다. 폭증하는 변동성 재생에너지로 인한
전력망 불안정성 해결을 위한 가장 현실성 있는 솔루션으로 기대
를 모으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본 과제를 비롯해 삼척 수소도시 타
운하우스형 주거 모델 기술개발, 재생에너지 모사전력을 활용한
수소 생산저장활용 시스템구축 사업 등 벌써 200억원 이상의 일
을 수행하고 있으며, 3년내 50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과제와 사업
수주를 예상하는 상황이다.

본 사업 참여를 통해서 회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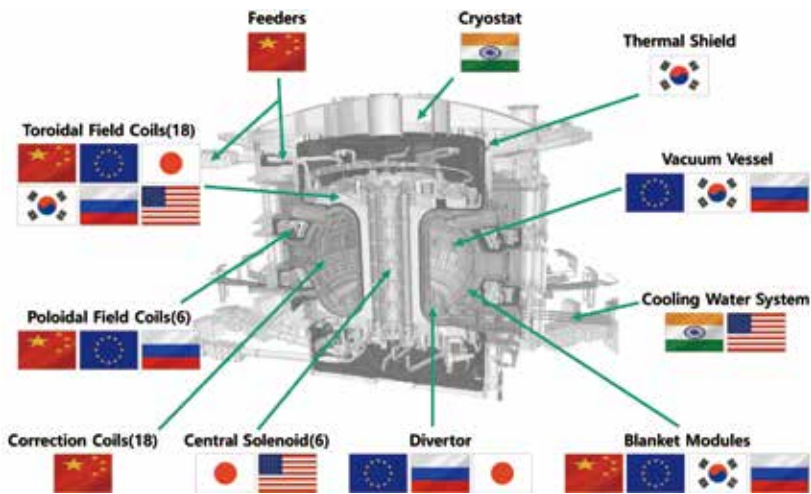
- 1) 변동성 재생에너지 급증으로 위협받는 전력계통 안정성 유지
핵심 솔루션으로 마이크로 그리드 종합설계 개념 확립,
- 2) 수전해를 통한 그린수소 Sector Coupling (P2G) 실증과 대용
량화 기술 구현,
- 3) AI 기반 EMS 기술 확보, 4) 디지털 트윈과 가상발전소(VPP) 구
현 기술 확보 등이 가능하리라 예상한다.

더 나아가 Micro Grid O&M 플랫폼 운영에 참여하여 관련 Data
댐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공공 데이터 개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
창출 기여로 장기 비전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제핵융합실험로(ITER)와 그린뉴딜

21세기 발전 등 에너지 산업분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요구가 거세다. 게다가 전기에너지 소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인류는 온실가스 배출은 최소화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우리회사는 한국판 그린뉴딜정책과 에너지 전환 정책에 부응하여 미래 청정에너지 개발을 위해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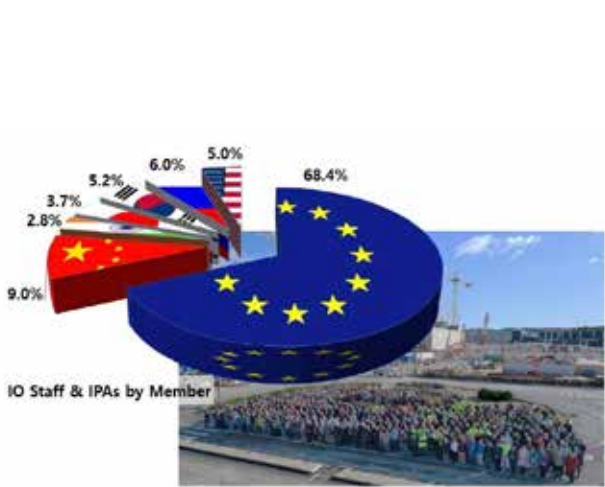
핵융합발전은 태양 원리를 본뜬 발전방식으로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융합하여 헬륨과 중성자를 방출할 때 상대성 원리에 따라 발생하는 막대한 에너지를 이용한다. 먼저 중수소와 삼중수소 가스를 거대한 도넛 모양의 ‘토카막’ 진공용기에 분사하고 수소를 가열해 플라즈마 형태로 만든다. 이 플라즈마를 섭씨 1억 5천만도까지 가열하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이때 분출하는 초고에너지 중성자의 열로 증기터빈을 가동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원료인 중수소와 삼중수소는 바닷물과 리튬에서 얻을 수 있으며, 수백만 년 동안 인류 사회가 사용할 수 있을 만큼 풍부하다. 파인에 플 정도 크기의 연료를 장전하면 석탄 1만톤에 해당하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핵융합발전소의 건설과 운영 비용은 원자력발전소와 비슷하나, 고준위 방사성 핵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아 ‘인류 궁극의 친환경 에너지’라고 불린다.



토카막 장치의 회원국별 주요 조달 품목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사업은 미래 대용량 청정에너지인 핵융합발전의 실현 가능성을 과학기술적으로 실증하는 초대형 국제협력 R&D 프로젝트로 핵융합 반응을 통한 전기 생산 가능성과 핵융합 장치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인도 그리고 유럽연합이 참여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회원국을 포함하면 총 34개국이 참여하는 국제 프로젝트이다. ITER 회원국은 공동이행협정을 2006년 11월 서명하고 2007년 10월에 ITER 기구가 공식출범하여 현재 프로젝트 수행중이다. 2025년까지 핵융합발전소를 건설해 2040년까지 운영하는 건설사업이 진행 중이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이다. 선진국이 축적한 핵융합 기술을 단기간 내에 추적, 확보하고 2050년대에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위한 핵심기술을 위해 2003년 6월부터 ITER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한국은 총 건설 비용 15.2조원 중 9.02%를 분담하고 현금 분담금은 ITER기구의 운영비 및 장치 정비 등에 사용하고 현물 분담금은 할당된 주요장치 조달 품목을 제작, 조립, 및 설치 후 운영하고 실험을 진행한다. 한국은 진공용기 본체, 초전도 도체, 삼중수소 저장 및 공급시스템을 비롯한 9개 주요장치를 제작 및 조달하고 있으며 분담률은 아래와 같다. 2020년 11월 말 기준으로 ITER기구에는 총 98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 중 51명의 한국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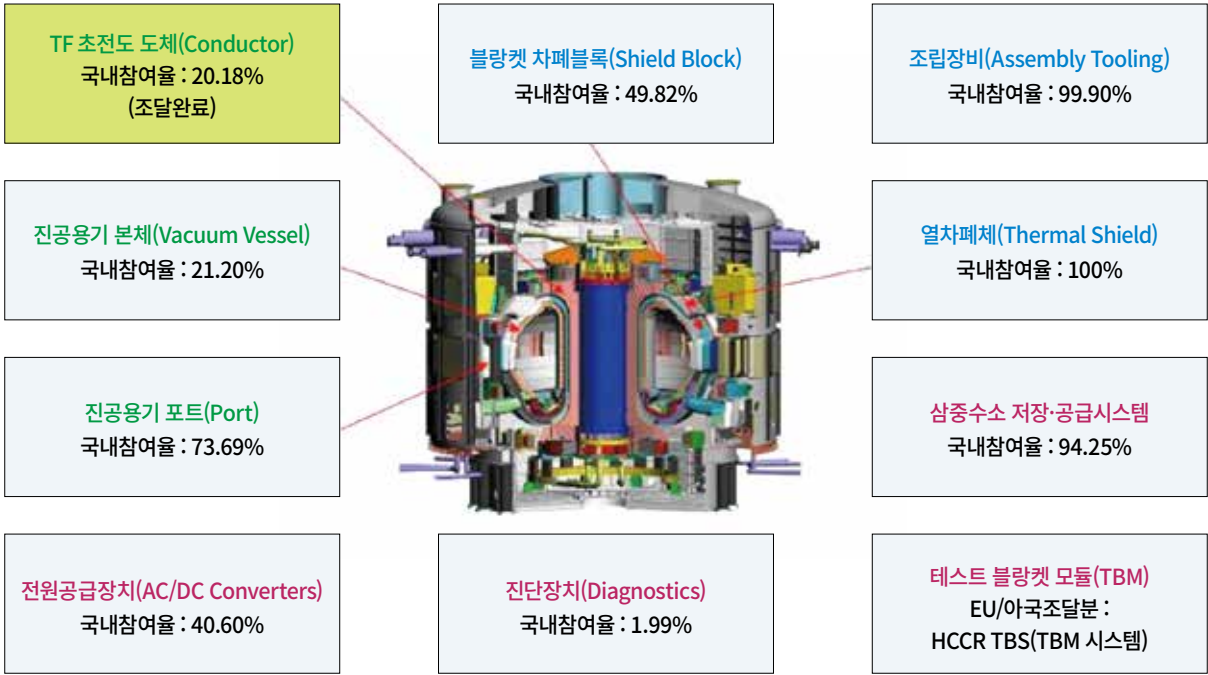
ITER 국가별 인력 참여현황



ITER 전체건설현장

우리회사의 ITER사업 진출은 2008년부터 이뤄졌다. 우리회사는 주로 건설관리용역(CMA)을 수행하고 있다. 세부사항으로는 약 10,000 Km에 달하는 ITER 장치의 동맥 및 신경망을 담당하는 전력, 제어, 진단 및 통신용 케이블에 대한 트레이, 트레이지대 및 케이블 경로설계(CESS)와 CODAC, CSS와 함께 ITER 과학 장치의 두뇌 역할을 하는 중앙연동제어계통(CIS)의 설계, 제작 및 유지보수 지원과 함께 토카막 조립, 설치 및 부대설비 건설 프로젝트의 시공관리계약, 형상관리, 사업관리, 건설관리 등을 수행한다. 또한 중소기업 상생 프로그램 일환으로 원전건설 납품

실적을 바탕으로 국내 우수 중소 기자재 제작사와 ITER 및 해외 시장 공동진출에 함께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및 해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므로 공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0년 11월 말까지 총 19건 1,359건의 사업을 ITER로부터 수주하였으며, 특수밸브 및 판형 열교환기 설계와 공급용역 또한 근시일 내에 계약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회사는 ITER CMA사업 인력파견 확대, 시운전분야 진출, Hot Cell Complex 설계 및 공급 등에 국내외 에너지 관련 기관들과 함께 적극 참여할 것이다. E&C



우리나라 할당 조달품목 현황

가족친화 우수기업 국무총리표창

회사는 12월 연말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이번 상은 어떤 단일 공로로 수여된 것이 아니라 2012년부터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공인된 이후 여러 제도와 프로그램의 기획/개발과 운영이 조금씩 쌓인 노력의 산물이다. 그 대상이 손가락 열 개로 헤아려 보아야 할 정도로 다양하다. 가족친화기업의 지향점은 “일과 가정의 균형”에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하나하나씩 실행하는데 많은 이들의 아이디어와 헌신이 있었다. 우선 굵직한 5개를 추려보았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 휴직확대
- 시간단위 연차사용 및 가족사랑의 날 실현
- 자녀돌봄 휴가 (코로나 19에 따른 학교, 유치원 폐쇄 일한)
- 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심리상담, 스트레스 관리 등)
- 직장어린이집 2개소 운영

시간단위 연차사용과 가족사랑의 날 실시는 전 직원이 체감하고 있다. 세대를 달리하여 느껴지는 정도를 ‘격세지감’이라 하면, 발에서 일하다 산기가 느껴져 느티나무 아래 앉았다는 할머니 세대, 집에서 놓고 미역국 먹은 부모 세대, 산부인과 출산과 산모 보름 휴가라는 부머 세대로 상황이 달라진다. 지금은 남성 5명 중 1명은 육아휴직을 내고 있다. 통계상 10년 새 16배 증가이다. 가정과 일의 균형을 더욱 조화롭게 발전하길 기대하며 이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노무복지팀 김영범 담당자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인터뷰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황에서 진행).



Family Cheer up!

Q 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공적조서 등 여러 복잡한 서류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비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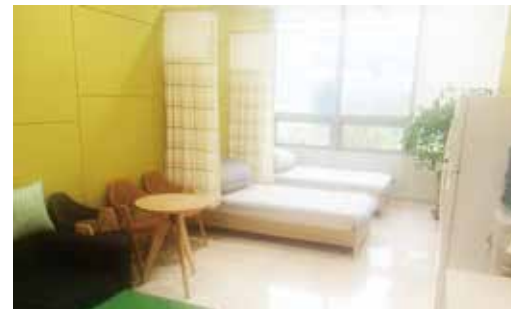
A 올해가 마침 가족친화기업 재인증을 해야하는 시기였습니다. 인증을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이 있다는 정보를 얻게되어 팀장님 격려에 힘입어 함께 준비하게 되었고,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Q 혹시 수상을 하는데 있어 우리회사가 특별히 내세울 점이나, 담당자 본인의 비결같은게 있으신가요?

A 무엇보다 최고 비결은 임직원분들이 가족친화적 좋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 기울여 온 노력의 축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간 도입되고 마련되었던 좋은 제도들, 축적된 노력을 정리하고 계량화하여 객관적 지표로 나타낸 것이 좋은 평가를 받는데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 등 가족친화형 제도를 이용하고 계신분들의 인터뷰를 첨부하여 신뢰성을 더하려고 하였습니다. 결국 정성과 정량적 측면에서 빠짐없이 좋은 평가를 받도록 공적조서를 꼼꼼히 설계하고 내용을 채워나갔습니다.



열린도서관 책읽어주는 날



모성보호실



직장어린이집



전통시장 살리기 행사



KBS교향악단 연주회

Q 이번 기관수상을 위한 업무를 하면서 힘들었던 점, 즐거웠던 점이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이 있을까요?

A 두 가지가 함께 있었다고 해야할까요? 이번 포상을 받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면서 밤10시까지 야근도 해보고 주말 출근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녹록치 않은 업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맡은 업무가 재미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간 우리회사 복지제도의 운영성과들을 정리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좋은 회사에 다닌다는 자부심이 생기면서 더욱 즐겁게 일하는 원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누가 시켜서 늦게까지 주말에도 일을 하려했다면, 전 아마 절대 못했을 것 같습니다.

Q 특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A 이번 20년도 가족친화인증 서류심사 항목에 전사 대상으로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조사’가 있었습니다. 해당 설문은 외부망으로만 진행되었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져 고민이 많았습니다. 대학생 시절 QR코드를 활용했던 기억이 있어 이번 설문에 응용하게 되었고, 조기에 필요한 응답률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설문 이후에는 팀장님의 도움으로 ‘20년도 개선 우수사례’에도 선정되어 개인적으로도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Q 담당자로서 우리회사에 좀 더 보완되어야 할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A 이미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있지만, 세대 간 나이차가 다른 회사보다 넓은 편입니다. 좋은 사내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넘어서 좀 더 서로 가까워지고 이해하는 제도나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Q 이번 사업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아쉬운 점이 있다면?

A 아쉬움이라고 해야 하나요? 저는 아직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은 입사1년차 신입이지만, 그동안 참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항상 느껴왔습니다. 취직 한 다른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우리회사의 수평적 분위기와 건전한 조직문화에 자부심을 느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모두 계량화할 수 없는 것이라 이런 좋은 점들을 모두 담지 못한 것이 내심 아쉬웠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한마디

A ‘가족친화기업인증’과 ‘국무총리표창’을 통해 외부에 성과들을 알리고, 이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기쁩니다. 무엇보다 이 일에 참여하여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E&C**



한기도담 어린이집 아이들의 보물찾기

아이들이 몰려오는 소리에 시끌벅적 와글와글하다.

엄마아빠 손 잡고 아장아장 걸어오는 아이. 킥보드를 타고 씽씽 달려오는 아이.

아빠 자전거 뒷좌석에 안전벨트 메고 껌딱지처럼 꼬옥 붙어서 오는 아이. 안전 헬멧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네 발 자전거 혼자서 타고 오는 아이. 어린이집 가기 싫다고 집에서

울고불고 떼쓰다 결국 늦어서 엄마아빠 차 타고 급하게 오는 아이.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아이들의 까르르 웃음소리와 회사에 지각할 까봐 시계를 연신 들여다보는 아빠들의 한숨 소리가 뒤섞여 오늘도 평화(?)로운 한기도담 어린이집의 아침 풍경이다.

우리집에서 어린이집까지 나 혼자 걸어가면 10분밖에 걸리지 않는 이 거리를 아이와 함께 등원하는 날이면 걸어가든, 킥보드를 타든, 자전거를 타든 상관없이 도대체 왜 20~30분이 걸리는 걸까?

아이들이 워낙 숫다리라 걷는 속도가 느린 이유도 있겠지만, 어른들이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길이었던 어린이집 가는 길이 아이들의 눈에는 커다란 보물찾기 놀이 장소로 변한다. 여기저기 숨어있는 곤충 친구들을 보물찾기하듯 어찌나 잘 찾아내는지. 길바닥에 줄지어 기어가는 부지런한 개미부터 몸을 둥글게 말아 몸을 숨기는 공벌레, 스파이더맨 거미와 비행 솜씨가 뛰어난 잠자리, 이 꽃 저 꽃을 날아다니는 나비와 꿀벌, 그리고 어제 밤 내린 비에 신나게 밖에 나왔다가 미처 땅속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지렁이까지. 하지만 뭐니뭐니해도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요즘 말로 최애하는) 곤충 친구는 메뚜기다. 예전에는 메뚜기를 보면 무서워서 도망가더니 이제는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메뚜기를 맨손으로 잘도 잡는다. 아침에 등원할 때 어린이집 가방은 안 챙겨도 메뚜기 채집통은 꼭 챙기는 아이들. 너희들이 서로 누가 많이 잡나 경쟁하듯 메뚜기를 잡는 바람에 울곡동 메뚜기가 아주 그냥 씨가 말랐다는 소문이 있더라 이 녀석들아.

“늦었어. 이제 그만 가자~

아빠 이리다 회사에 지각하겠어. 응? 착하지 우리 아들~”

어르고 달래서 드디어 어린이집에 도착한 아이는 능숙하게 킥보드(킥보드가 맞는지? 킁보드가 맞는지? 우리 어릴 때 부르던 씽씽이가 더 정겹다)를 킥보드 주차장에 쓰윽 주차하더니 선생님께 배꼽인사하고, 아빠한테도 배꼽인사하고(기특하게도) 어린이집으로 들어간다.

어라? 가만보니 이 녀석들 킥보드 주차 실력이 장난이 아니다. 지정된 주차구역에 일렬로 정확하게 주차를 하더니. 서울 시내에는 전동 공유 킥보드가 횡단보도나 대로변에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불법 주정차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는데, 서울 사람들이 한기도담 어린이집에 와서 킥보드 주차 예절을 좀 배워야겠다.

킥보드 주차장을 뒤로 하고 나오는데 어린이집 벽에는 코로나19 대유행 때문에 반별로 나눠 진행한 추석 민속놀이 한마당 행사 때 작성한 각 가정의 소원이 달려있었다. 빅데이터로 분석(?)한 한기도담 어린이집 가정의 소원 키워드 5가지는 “코로나 끝, 여행, 건강, 행복, 사랑”이었다.

당연했던 일상이 이제는 소원이 되어버린 지금. 우리 아이들이 마스크 안 쓰고 친구와 뛰어놀며 간식 먹기, 손소독제 없이 친구 손 잡고 껴안아 주기, 봄에는 봄소풍, 가을에는 운동회 등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당연하지 않게 되었다.

지금은 없어진 KBS 개그콘서트의 2006년 당시 인기 코너였던 “마빡이”가 시작할 때면 이런 노래가 나온다.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 박기 망까지 말타기~ 놀다 보면 하루는 너무나 짧아~♪. 멜로디는 익숙한데 제목을 몰라 검색해보니 이 노래 제목은 “보물”이었다. (친구들과 마을 앞 공터, 좁은 골목길, 뒷산 언덕에서 재미있게 놀았던 어린 날 추억이 바로 보물이라는 내용의 가사를 담고 있다.) 뽀로로 말대로 노는 게 제일 좋고, 놀다 보면 하루가 너무 짧은 아이들인데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든다. 하루 빨리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나서 한기도담 어린이집 가정의 소원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이 맑은 가을하늘 아래 어린이집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마스크 없이 마음껏 뛰어놀기를,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의 “보물”을 되찾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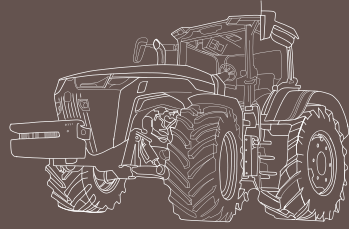
오늘은 네 발 자전거 타고 등원하는 길이다. 아들아~ 저기 아빠 회사가 보인다. 이제 그만 한눈팔고 자전거 페달을 좀 굴리렴. 조금만 더 힘내자! 아자아자! (아빠의 지각 여부는 너에게 달려있단다.)

끝으로 이 지면을 빌어 임직원의 건강을 위해 힘쓰고 계신 담당 직원 분들께, 그리고 어린이집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힘써 주시는 한기도담 어린이집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E&C

심층취재

산방도민의 삶



최장권 부장의 “농장을 가꾸며, 소담산방” 사보 기사는 오래 기억에 남았다. 글과 사진도 좋았고 독자 호응도 높아 심층취재를 선약해 두었다. 실물로 접한 산방은 ‘풍수’라기에 멋쩍지만 탁 트인 앞, 낮은 야산을 뒤로, 그 사이 조그만 분지형에 자리 잡아 어찌면 아지트 같은 느낌이 들었다 [미국과 일본은 ‘아지트’ 취미자가 많고, 자연 속에 자기만의 비밀공간을 만들어 즐기는 형태로 ‘나는 자연인이다’도 일종의 아지트이다]. 11월 11일 하늘은 푸르고 햇살이 살가운 날 인터뷰는 이루어졌다. 전편 소담산방이 스케치라면 이번은 대상을 보다 구체화하여 전원을 계획하는 분에게 도움을 주려 한다. ‘[]’에는 약간의 추가 정보와 설명을 담았다.

Q 토지 400평, 지목 ‘전’이면 전기 인입과 관정 굴착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A: 입구 전봇대 세우고 배선작업하는데 대략 50만원, 관정은 소공으로 150만원 들었습니다. 업체가 수맥이 안 보인다고 여러 곳 포기했는데 마지막 의뢰받은 김천 업자가 물이 나올 곳을 다행히 찾았어요. 정화조 공사는 굴착기로 손수 했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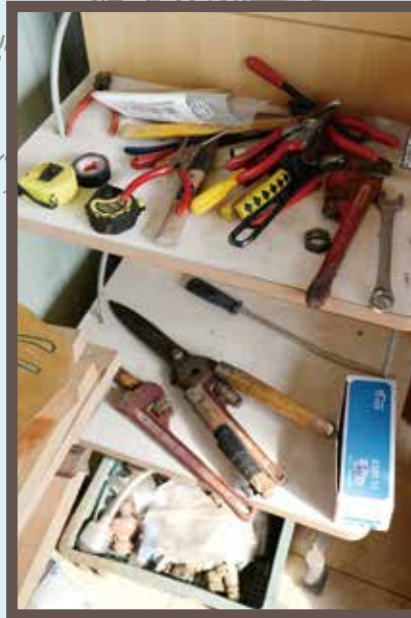
Q 경남 쪽에선 소공 기계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중공, 대공으로 가는데. 그분은 지하 물길을 어떻게 찾았는지요.

A: 눈대중으로 잡은 것 같아요. 지세와 인근 물 나오는 지형 보고서요. 아무래도 각 분야에는 고수라는 존재가 있는가 봅니다.

[전기인입은 200m 범위 내 전봇대가 있어야 한다. 그 이상의 경우 1m 거리당 추가설치비가 꽤 늘어난다. 전기신청 시 농사용, 주택용이 있는데 최부장 설명에 따르면 농막 전기는 농사용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관정은 지하수 우물로, 드릴 구멍 크기에 따라 대, 중, 소공으로 분류한다. 농촌에는 도시 상하수도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이 많다.]

Q 안팎을 보아도 조립식 주택으로 보이지 않고 농로가 좁아 운반하기도 어려웠을 것 같은데 조경석과 정원수는 어떻게 심었나요?

A: 조립주택은 신품(2천만~3천만원 수준) 아닌 중고로 구입했구요. 이전 주인이 황토주택처럼 꾸몄습니다. 또 제가 여기저기 추가 했구요. 농로라 해도 5톤 트럭이 들어왔고 커브 길에 철판을 깔아 고비를 넘겼지요. 토지가 조금 경사졌는데 주택지는 성토로 땅을 좀 높이고 소나무는 대 여섯 그루 공짜로 얻어와 심었죠. 소나무는 이전하면 환경변화로 잘 죽어 몇은 사망했습니다. 정원과 조경은 밑그림을 물론 그려두었습니다. 조경석에는 파쇄석, 굴림석, 디딤석, 자연석 종류가 많은데.....긴 설명 이어짐. [산방 주변에는 잣, 동백, 사철나무 등이 자라고 있었다. 뒷마루는 목수를 불러 하루 짚고 산새들이 처마 틈새로 날아들어 하룻밤 자고 갈 때가 많다. 새똥으로 보아 작은 뱀새류이다.]



Q 자두와 복숭아 농사는 어떻게 됩니까?

A: 자두는 대석, 복숭아는 천도입니다. 자두나무는 노령화되어 고민 중입니다. 돼지감자 캐러 한 번 오세요. 과일 종류별로 전지 방식이 모두 다를 터인데 초보는 아까워 머뭇거리고 전문가는 과감히 싹 쳐버리지요. 농사는 저마다 소신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전지작업도 남이 하면 엉터리고 자기가 하면 정석이라는 분이 있지요. 평생 농사지는 근골과 도시 살다 오신 분은 체력이 다릅니다. 농사로 심하게 노동하면 병들 수 있기에 힘에 부치지 않게 욕심 버리고 몸을 아껴야 합니다.

[최부장은 ‘도장지’를 언급했는데 큰 가지 위로 작은 가지가 수직으로 자라나 햇볕을 차단하고 양분을 빼앗는다. 보통 ‘도둑가지’라고 부른다. 쓸모없다고 모두 제거하면 잎이 부족해 열매를 맺지 않는 경우도 있다.]

Q 농촌이면 혼자 해결할 일투성이인데 요긴한 기술과 연장은 있는지요?

A: 일단 소형 트럭이 없다면 제약이 많구요. 굴삭기 운전을 배우면 대여받아 여러 작업이 가능합니다. 농촌도 인건비가 무섭기에 자신이 할 수 없는 부분은 전부 돈입니다.

[그는 작은 창고로 데려가 공구를 보여주었다. ‘Makita’와 ‘Dewalt’ 상표가 선명한 원형 커팅기, 연마기, 전동농약분무기로 가득했다. 마당 한결 황토 아궁이에 무쇠솥과 연통이 걸렸다. 모두 자작하였다. “고물상을 적극 애용하라!”는 그는 가마솥이 중국산 같다고 주석이 함유된 조선솥으로 바꿀 계획이다. 따로 서각 작업실을 꾸려놓아 작품을 구경했다.]

미안하게도 최부장 콧수염을 보면 별들의 고향이라는 이장희 가수가 생각난다. 그의 ‘휘바람을 부세요’ 노래가 들리는 듯한 착각은 마무리 시점에서 일어났다. 시골 살림살이가 어떠냐고 물었다. “처음 친구와 지인을 산방에 자주 초대하고 여기저기 손보며 바쁘게 지내다 요즘 홀로 고요히 지내는 참맛을 알았어요. 고즈넉한 평화로움이라 할까요. 혼자 있으면 편해요.” 주먹만한 까만 코를 비벼대며 일싸만기는 도담이(그레이트 페레니즈 대형 목축견으로 천사표 눈빛을 가졌다), 자기랑 슬래잡기놀이 해 달라고 조르는 소담이(진돗개)를 남겨두고 떠나기 힘들었다. 산방 뒤 작은 대숲이 보였는데 그는 한밤중 땃바람 소리를 들었을까? 소담산방은 절묘한 위치, 아늑한 땅으로 그만의 아지트다. **ES&C**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를 틈타 급히 떠난 제주에서 우연히 만난 일출



손인자 경영혁신실 차장 / 삼성갤럭시 Note9

전날 새벽잠과 호텔 조식을 포기하고 오른 송악산에서는
보여줄 듯 보여줄 듯 그렇게 안달나게 하더니 ...

오늘은 고즈넉한 해안도로에 진입하자마자 일찌감치 떠오른 일출을 만났다.

찬란한 해를 보니 웬지 모르게 두 손 모으고
새해 일출 앞에서나 하는 소원 비슷한 것을 빌게 된다.

2021년 새해에는 부디 코로나와 “안녕”할 수 있길 ~~
2021년 새해에는 모두 모두 “건강”하길 ~~

연탄을 나르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구는 3억 년 전 거대 양치식물 숲으로 뒤덮였다. 이게 땅속에 묻혀 갈탄 또는 석탄으로 바뀌었다. 그 형성된 세월과 양은 상상을 초월하지만 불에 타는 돌과 끓는 물의 증기가 내는 힘은 막강했다. 석탄과 함께 자연과학의 맹아가 싹트다고 말할 수 있다.

골목 구석구석 제 몸을 간밤에 불사르고 하얀 재로 변해 전신주 옆에 쌓여 있던 연탄은 60년~70년대의 응답하라 동네 풍경이다. ‘빼치카의 추억’을 기억한다(러시아 말로 ‘폐치카’). 이게 물로 반죽한 석탄류를 난로에 넣어 불을 피우거나 불길을 유지하는데 상당한 경험을 요한다.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간 완주군 대아리 저수지 유격훈련장 막사에서 빼치카 난로가 밤새 꺼져 얼어 죽을 뻔 했다. 새벽에 장병들이 모두 닥터 지바고로 변했다. 빼치카 연료에 비하면 연탄은 얼마나 고귀하고 편리한 물체인가!

지금도 연탄은 언덕길 위 집들의 겨울나기 생필품으로 존재한다. 새까만 알몸이 일단 불붙었다면 마른 장작처럼 화기를 뿜어내는 연탄은 추운 밤 잠들기 힘든(寒窓不夢成) 분들에게 온기를 그리고 음식을 데워주는 고마운 물건이다. 예전에 19구멍탄이라 불렀지만 요즘은 몇 개 일까? 앞치마, 마스크, 장갑으로 무장한 직원이 일렬로 부지런히 연탄을 옮기고 있다. 9명의 동선 움직임을 좌에서 우로 눈동자를 돌리면 한 편의 모션 픽처로 보인다. 등장인물 첫 줄에 서서 연탄을 옮겨주고 조금 허리가 아픈 듯 미간에 힘을 주지만 연탄 한 장으로 하룻밤 잘 나길 바라는 마음에는 미소도 숨어있다. 이 사진 속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사진 속 주인공을 아시는 분은 rdh@kepeco-enc.com으로 1월 30일까지 메일 주시면 추첨을 통하여 다섯분께 커피 쿠폰(일만원)을 제공합니다.



드림창조협동조합 카페

바리스타 임주리 백예림

‘Coffee Kingdom Blend, 과테말라 50%, 브라질 및 기타 50%’, 직원이 즐겨 마시는 커피콩 정제이다.

과테말라산 커피는 거친 면과 부드러운 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대체로 몸이 뜨거운 청춘은 아이스 커피로, 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노령은 핫 커피를 주문하는 편이다. 역시나 아메리카노가 부동의 1위, 그 뒤로 카페라테, 유자차가 순위를 잇는다. 그런데 청굴 탄산 에이드나 에스프레소를 마시는 이는 누구일까? 친절 발랄한 눈이 큰 아이 임주리 바리스타, 한참을 어디서 본 듯 기억을 굴리다가 ‘혹시 배두나 닮았다는 소리 안 들어요?’ 물었더니 그 말을 늘 듣는다는 백예림 바리스타를 만났다.

80년대 초 미국문화를 처음 접했을 때 신기했던 것은 일반가정의 1인당 신발 개수가 족히 20족 이상이거나(그 당시 한국은 1인당 평균 2~3 켤레 수준), 그네들이 원두커피를 마시는데 도대체 무슨 맛으로 마시는지 알 도리가 없었다.

한국은 다방 커피밖에 없던 시절이라 달짝지근 짭조름한 맛뿐이었다. 데이트 상대에게 비엔나 커피를 사주면 호사스런 일이었는데, 정작 비엔나에서 마신 커피는 한국의 그 맛이 아니었다. 도둑질도 해본 놈이 다시 하는 것처럼, 원두커피도 자꾸 마시다 보면 구수한 송농 맛이 난다. 탄수화물과 단백질, 그 뒤편 살짝 탄 맛이 내는 향과 감칠맛이다.

양탕국 천상선녀 두 분에게 허구한 날 생겨나는 커피점에 그 맛의 차이와 비법이 있는지 하교를 부탁드렸다. “모든 이가 사랑하는 성록국(星鹿國, 스타벅스) 탕국도 자기 입에 쓰고 텅텅할 뿐이라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맛은 결국 취향 아닐까요?”라는 욕음이 도달하였다. 예술과 음식을 ‘멋’과 ‘맛’으로 치환하면 사람마다 취향이 생래적일까, 후천적일까(Nature Vs Nurture)의 논란은 끝이 없다. 타고난 미뢰 탓도 있겠지만 취향은 항상 유동적으로 변하기도 한다. 소녀들의 전음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다면 본인은 설빙국 양탕국이 목 넘김이 가장 부드럽고 좋았다. 직원들이 탕국과 곁들여 먹는 별식 중에 무엇이 인기 좋은지 물었다.

“네, 포테이토 치즈샌드위치와 플레인 스콘이 잘 나간답니다. 또 지하 1층에는 커피콩빵이 있어요.”

드림창조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카페 3곳 중 직원은 어디서 일하기를 원할까? “지상 28층은 라운지라는 로망이 우리들 사이에 좀 있지만 혼자 일하기 다소 외롭구요(임시휴업 중). 지하 1층은 2명이 근무하여 덜 바쁘고 여유가 있고 또 건강음료 컨셉입니다. 지상 1층이 5인이 일하는 가장 활기차고 바쁜 공간입니다.” 카페의 최고정점을 찍는 시간은 언제일까? 그 시간대는 점심시간 이후 20분이 마(魔)의 구간이다. 긴 줄이 늘어선 걸 보고 몇 번 발길을 돌린 적이 있다.

보통 커피점 근무가 꿀알바로 통하는데 끝없이 주문이 밀려들면 장난 아닐 것 같다. “그래서 하루 또는 사흘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는 사람도 있어요.” 8시간 풀 타임 근무는 아무래도 체력적 부담이 되는 듯하다. 혹시 진상이 있어 괴롭히지는 않나 은근 걱정이었다. “빵, 고구마, 사과, 꿀 등 간식을 건네주는 아저씨들이 있어요. 성격 급한 아저씨는 저 멀리 걸어오면서 커피 주문을 막 외치는 분도 있구요. 후훗~ 저희들은 많은 얼굴을 상대하다 보니

간혹 단골인 자기를 알아봐 주지 못해 서운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안면인식 능력이 다르겠지만 바리스타들은 얼굴 인상과 주문 음료를 매칭시켜 암기하는 능력이 있다. 그건 얼굴과 목소리만으로도 ‘카푸치노 한 잔’이 머리에 떠오르는 경지이다. 문제는 퇴근 후 낮익은 분과 길거리에서 마주치면 한순간 머뭇거리며 반사적으로 인사할 때도, 더듬거릴 때도 있다. 순간 당황한 것이니 오해 없도록.

봉봉사중단의 “꽃집의 아가씨는 예뻐요.” 노래를 찾기 위해 방방곡곡의 앨범 소장가와 방송국을

십 년 넘게 뒤진 적이 있었다. 커피점 아가씨들은 연자색 티셔츠와 검정 모자, 카키색 앞치마와 청바지 유니폼을 입었는데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절충적 색감으로 싱그름을 자아낸다. 몇 가지 형태의 유니폼이 있을까?, 요일에 따라 바뀔까? 궁금하면 살펴보시라. 바쁜 와중에 잠깐잠깐 쉴 틈이 생기면 그녀들의 수다가 도래한다. 그걸 공개해 주셨는데 화제의 절반 이상은 “그날 먹고 싶어 머리에 떠오르는 음식이야기”라니 놀랍다. 그래서 퇴근 후 치맥 파티가 종종 열리기도 한다.

두 분은 김천이 고향은 아니지만 어릴 적 김천으로 이사와 자랐다. 임주리 바리스타는 하루 1시간 필라테스로 마무리하고 브런치 전문의 작은 커피 카페를 열고 싶은 꿈이 있다. 백예림 바리스타는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게 좋아 하숙집 또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싶어한다. 맨해튼 트랜스퍼의 자바 자이브라는 노래, “I like coffee, I like tea, Jave and me.”에는 웬지 커피 한 잔에 행복이 가득 찬 느낌이 돈다. 햇살 가득한 카페를 보면 루이 암스트롱의 ‘On the Sunny Side of the Street’, ‘Hello Dolly’ 노래가 저절로 흥얼거려진다. 그러나 커피 하면 “향기로운 MJB의 미각”으로 시작하는 이상의 산촌여정도 잊지 못한다. **ES&C**



인디 입구



인디 내부



타지마할 모형



인디 세트 차림



인디의 요리사들



인디의 선물 박스



인디의 창문과 선물도 특이하다

인디

향기로운 노란 향신료



카레는 인도 요리지만 영국과 일본 덕분에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You call it coffee?’라는 표현이 있다. 진한 에스프레소를 즐기는 유럽인이 맹한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이걸 커피라고 부르나요?”라는 일종의 희극적 농담이다. 인도인이 외국에서 만든 카레 요리를 맛본다면 커피 대신 ‘커피’라는 말을 넣는다. 한국인에게 외국에서 먹는 김치가 이에 상응한다.

강황 이외 어떤 재료가 카레에 들어갈까? 인도 카레는 30~70가지 이상의 오묘한 향신료가 들어간다. 본토 음식은 강한 맛, 외국에서 현지화한 음식은 순한 맛을 내는 공식이 있다. 대체로 외산 카레는 향신료 배합 수를 줄이고 묽은 맛을 낸다. 중동의 재래시장에는 온갖 현란한 색깔의 카레 재료를 보고 냄새 맡는다. 이곳 교민들은 ‘난’이란 빵을 ‘걸레빵’이라고 부른다. 구운빵 모양이 제각각이고 행주처럼 처지는 모양새 때문에 그렇다. 초창기 코로나가 한창일 때 인도인은 카레를 먹어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소문이 웹에 떠돌았다. 카레에 들어가는 강황과 향신료는 항균, 항염 작용을 한다. 국내에 강황주스를 건강상 드시는 분도 있다. 여하튼 카레와 난은 환상적 궁합을 이룬다.

현지 인도인이 조리하는 ‘인디’ 실내는 갈색 바탕에 차분하고 어둡다. 이슬람 격자무늬 창틀, 중앙의 연못, 인도풍 소품과 사진이 여기저기 보인다. 난은 갈릭, 버터, 일반 셋 중에 고른다. 카레는 닭, 양, 야채 중에 선택한다. 고객 선호도를 슬쩍 물어보니 닭이 무난하고 잘 나가는 편. 세트로 주문하면 탄두리 치킨 또는 바베큐, 인도산 요구르트, 샐러드가 함께 나온다. 탄두리 치킨은 꼬치로 나오고 양념은 흡족한데 조금 딱딱한 닭살이다. 닭가슴과 닭다리 파(派)에 따라 선호도는 달라질 듯. 인디에서 탐나는 소품을 보았다. 향아리 모양의 굵직한 스테인리스 금속제 물컵은 업어오고 싶을 정도로 디자인이 탐난다.

버터 향의 고소함을 좋아하면 버터 난, 느끼함을 싫어하면 담백한 갈릭 난이 좋다. 미국극장에서 팝콘은 버터액을 듬뿍 뿌려 범벅해 주는데 영화관을 나올 때 손이 진득한 떡이 되었다. 그 추억을 회상하여 버터 난을 주문했다. 난을 카레에 살짝 찍어 먹지 말고 탄두리 치킨, 샐러드, 초절임 양파, 무와 함께 카레를 듬뿍 올려 쌈 싸 먹어야 맛있다고 지배인이 귀띔해 준다. 청개구리 기질로 카레와 난만의 진검승부를 펼친다. 여백의 순한 난 위로 강력한 카레 맛이

뛰어난다. 이 순간 콜라보다 홍차를 마시고 싶었다. 얼그레이라면 더욱 좋고!

아리안 민족 기원은 늘 역사학자들에게 미스터리였다. 최근 DNA 분석결과 현재의 이란, 이라크 등의 바빌론 지역으로 좁혀졌다. 남인도 드라비다 인종은 흑인에 가까울 정도로 피부색이 검다. 북인도의 아리안 계통은 백인이라 할 정도로 희다. 토종남과 외래북이 만난 인도 문명은 술한 인종과 언어가 뒤섞여 있다. 이 때문에 온갖 향신료가 뒤엉킨 혼합형 카레가 탄생했을지도.....

Barley, Millet, Dung, Soot 단어를 공부할 때 우리말과 발음이 비슷하여 고개를 까우뚱한 적이 있다. 보리, 밀(기장), 똥, 숯(검댕)의 어원은 인도에서 왔다는 학설은 인도 농경문화가 일찍 세계로 퍼져나간 결과라고 한다. 요가Yoga는 영어의 Yoke와 같은 말이다. 이와 같이 카레와 난도 세계로 번져나갔다.

석 달에 한 번 짜장면에 고춧가루를 팍팍 뿌려 입안에 비벼 넣고 단무지를 쪽쪽 빨아야 개운하다는 한국인 식성이지만, 세계를 정처 없이 떠돌 때 외국의 어떤 골목길에서 카레와 난 그림이 그려진 간판을 보면 왠지 그 앞을 서성거린다. 경험칙에 따르면 이 요리의 선택에 대해서는 과히 실패가 없었다.

인디 대전 테크노밸리점은 원설단에서 차로 10분 거리 관평동에 있고 아담하고 속닥한 분위기가 나며, 둔산점은 넓고 분주한 느낌이다. “1인 1메뉴 주문시 추가 난 100원”은 난을 무제한 제공한다 는 뜻과 같다. “우리는 물과 카레 고품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문구는 닭육수를 사용한 그레이비(grav) 형태에 가깝게 조리하며 일본식 카레와는 차원을 달리한다는 의미이다.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인도 정취를 즐기면서 사랑하는 분과 오붓하게 인도 쌈밥을 즐기고 싶은 분에게 추천한다. 촬영을 위해 주방일로 바쁜 인도인 요리사 3분을 어렵게 사보에 모셨다. **E&C**

세계 유일의 정통 오미자 와이너리 문경 오미나라

오미자 오미로제(OmyRosé)

보통 우리술하면 막걸리, 증류식 소주, 약주를 떠올리지만 우리술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낭만이 있는 곳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선정하여 발표하는 찾아가는 양조장 40선에도 와인을 제조하는 와이너리가 꽤 있는 편이다. 특히 경북지역에는 우리 회사가 있는 김천을 비롯하여 문경, 영천, 의성 등에 다른 지역대비 많은 와이너리가 있지만 전국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오미자를 주재료로 하는 와이너리는 찾아보기 어렵다. 세계 유일의 정통 오미자 와이너리라는 오미나라를 찾았다.



자매농장인 청화원이 있는 해발 300m 이상의 산골 농가에서 재배된 무농약 원료로 제조되는 오미나라의 우리술 OmyRosé는 장인정신으로 만들어진 우리나라 와인 명주다. 오미자는 대부분 신맛으로 표현하지만 우리나라가 원산지로 한자 그대로 매력적인 색조와 상큼한 신맛, 은근한 단맛, 쓴 맛, 매운맛의 허브향, 그리고 짭짭까지 지닌 과일이다.

오미자를 이용한 와인의 대가로 알려진 오미나라 이종기 대표는 우리나라 위스키의 살아있는 역사이기도 하다. 이종기 사장은 일본 기린맥주가 시초인 동양맥주(오비맥주, 카스)가 1980년 캐나다 시그렘과 합작한 오비씨그렘에 입사하여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섬세스페셜, 원저12, 골든블루를 개발한 국산 위스키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41년 경력의 마스터 브랜더로 역시 유명한 마스터 브랜더들인 최상규/문성훈 부사장과 함께하고 있다.

주류회사 경력 10년차인 1990년 스코틀랜드 수도 에딘버러의 헤리웃 와트 대학원에서 양조학을 공부하고 있을 때 세계 각지에서 모인 급우들과 파티에서 각 나라별 술들이 다 호평이었는데 그가 준비한 한국의 대표적 인 약재 침출주의 술만 무시당하자 이때부터 세계의 모든 애주가들이

감탄할만한 명주를 반드시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 때 프랑스 여학생이 가져왔던 멋진 샴페인 글라스와 로제 샴페인의 스파클이 아주 아름다웠단다. 귀국 후 고향집에 개인 연구소를 차려 많은 시행착오 끝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원료로 양조실험을 거쳐 오미자 재료의 와인인 오미로제를 개발하였다.

오미자는 더할 나위 없는 양조용 재료라는 확신이 들었으나 발효도중 매력적인 붉은 색깔이 퇴색된다는 문제가 있어서 청정하면서도 특유의 스파이시한 오미자향을 그대로 내는 와인을 만드는 것은 어려웠다. 더군다나 천연재료인 오미자의 쓴맛과 짭짤, 그리고 신맛은 와인으로 조화시켜 제조하고 발효하기에는 도움을 주기는 커녕 장애물이었다. 흔히 사용하는 천연방부제가 짭 소금이거나 신 맛의 식초, 쓴 맛을 내는 식물이라는 점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오미자의 날카로운 신맛을 부드럽게 누그러뜨리는 방법은 오크통 숙성으로 해결하였다.



증류설



오크통숙성고

더욱이 와인을 만들려면 당도가 24브릭스 정도는 되어야 보당(설탕을 추가하는) 과정없이 술을 빚을 수 있는데 오미자는 당도가 12브릭스로 포도의 당도 14-15브릭스보다 못해 보당절차도 거쳐야 했다. 발효 숙성도 문제였다. 보통 포도와의 발효 숙성과정은 6개월 정도면 된다. 즉 4주 정도면 포도주 발효가 완료되고 5개월 정도 숙성을 거치면 마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포도주로 완성이 된다. 그러나 오미자는 40일은 커녕 3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발효조에서 1년 6개월을 그리고 다시 병입되어 1년6개월을 숙성시켜야 오미로제 와인이 완성된다.

발효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되었지만 스파클링 와인을 만드는 샴페인 공법은 또 다른 문제였다. 병에서 2차 발효를 하여 충분한 압력으로 스파클을 만들어 내는 기술, 그리고 압력 손실없이 찌꺼기를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어려운 도전이었다. 가장 비싼 샴페인이라는 동페리농을 제조하는 에페르네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300여 년 전 프랑스 샹파뉴의 에페르네 근교 오빌레 수도원에서 설명하면서까지 샴페인을 만든 동페리농 수사를 스승으로 삼았다. OmyRosé는 2011년에 3년 숙성한 로제 스파클링 와인으로 완성되었다.



오미나라 양조장



나만의 와인만들기 체험



고운달 오크

고운달 백자

오미나라가에서 생산하는 와인은 스파클링 와인과 로제 와인이다. 여기에 사과발효주를 증류시킨 사과브랜디(40도/25도, 문경바람)와 로제와인을 증류한 브랜디(52도, 고운달)도 생산하고 있다. 고운달 백자와 오크는 오미로제에서 만드는 명품 브랜디다. 30년산 외국산 유명위스키와 맞먹는 가격이지만 증류기 끓는 소리가 들리는 시음장에서 맛보니 50도 넘는 브랜디가 국내산 대중 소주보다 부드러운 느낌이 일품이다. 강추 아이템이다. 스파클링 와인인 오미로제의 맛은 샴페인 방식으로 2번의 발효를 거치면서 형성된 탄산으로 경쾌하다. 장미빛 색깔의 오미로제 스틸 와인도 스파클링 와인처럼 부드러운 산미와 단맛, 스파이시한 맛까지 포함한다.

오미나라는 경북 문경시 문경을 새재로 609(전화 : 054-572-0601)에 있고 제품 구입이나 와이너리 체험은 www.omynara.com에서 구입이나 신청할 수 있다. 오미나라의 공장자리는 과거 새재를 넘어 기호와 한양으로 길 떠나던 과객들이 유숙했던 주막터라고 한다. 오미나라 농원, 시설, 제조과정의 설명과 함께 오미로제 와인과 브랜디를 시음하는 2시간 짜리 와이너리 투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E&C](#)

기쁨의 실력

喜

pleasure

happiness

joy

delight

기쁨

한국인의 성격을 부정적으로 말할 때 흔히 함께 울어주기는 잘해도 함께 웃어 줄 줄은 모른다고 한다. 흔히 사춘이 눈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과 비슷한 맥락이다. 또한 남이 슬퍼하면 동정하는 척하지만 내심으로는 일종의 대리 만족을 느낀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 그게 정상이라.

기뻐한다는 것, 그래서 웃는 것은 인간의 원초적 심성이다. 성경에도 “항상 기뻐하라”라고 권유를 넘어 명령에 가까운 말이 나온다. 기쁘면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기쁘게 된다는 행동주의 과학자(Behavioral Scientists)의 주장도 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모든 일은 기쁨의 대상이 되고 따라서 웃음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가능한 것이다. 버나드 쇼인지 쇼펜하우어인지 분명치 않으나, “내게 있어 행복이란 대체로 소화의 문제이다. : Happiness for me largely is a matter of digestion.” 라고 말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에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많다.

나는 80에 가까운 이 나이에도 운동시합 구경을 좋아한다.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요즘은 주로 티비를 통해서 구경하는데 연속 드라마와 함께 스포츠 경기 시청으로 하루에도 여러

시간을 티비 앞에 붙어 있으니 아내의 편찬을 자주 듣게 마련이다. 다른 식구들도 볼륨을 줄여달라고 성화가 만만치 않다. 그래도 나는 많이 본다.

운동 경기는 가장 자주하기도 하는 야구를 많이 보게되는데 예전에는 이승엽 때문이었는지 삼성라이온스를 좋아했지만 지금은 키움을 좋아하다. 키움의 선수들 중에서도 박병호, 이정후, 김하성 등 타자들을 좋아하고 투수에 대하여는 류현진이 토론토로 떠난 후부터는 특별이 더 좋아하는 선수는 없으니 나는 반쪽짜리 관중인 셈이다.

경기 중에서도 단연 축구를 좋아하지만 경기 자체가 어쩌다 한번씩 열리니 아쉬움이 크다. 나름대로 특징이나 별명을 붙여 호명하면 모두가 좋아하는 양발쟁이 손흥민은 물론 돌아서며 왼발로 차는 황의조를 특히 좋아하고, 축구 천재

박주영, 날쌔 사슴 이승우, 칼 이강인, 표범 황의찬, 요리조리 이창용, 작은 탱크 이근호, 나비같은 권창훈 등을 좋아한다.

그 밖에 배구와 골프 구경을 많이 하는데 둘 다 남자보다 여자가 뛰는 경기들을 더 좋아한다. 골프는 국민 선수 박인비는 물론 김세영, 김효주, 미셸 위, 리디아 고 등 한국인 선수들을 좋아한다. 배구는 흥국생명을 주로 응원하는데 최근 귀국한 김연경은 물론 이재영과 이다영 쌍둥이 자매를 특히 좋아한다. 또한 카리스마 넘치는 박미희 감독도 좋아한다.

이렇게 운동시합의 관람이나 시청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관람 중 고비고비마다 터지는 함성과 세레머니가 없다면 도대체 무슨 재미가 있을까? 득점을 했을 때 관중의 환호 속에 방방 뛰며 서로를 껴안거나 넘어뜨리거나 머리를 만져주며 열광하는 선수들의 모습은 얼마나 신나고 아름다운가? 특히 나는 여자배구 선수들의 그런 모습을 참 좋아한다. 득점했을 때는 물론 실점했을 때도 서로를 껴안고 웃음으로 격려하는 모습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가?

관중이나 선수 자신들의 이러한 모습을 나는 ‘기쁨의 실력’이라고 부르고 싶다. 비단 운동 시합에만이라. 우리의 삶 굵이굵이에서 우리는 기쁨의 실력을 보일 수 있고 누릴 수 있으리라. 그리고 개인과 사회 구성원들의 기쁨의 실력이 늘어나고 커지면 그만큼 밝고 명랑한 사회가 되리라고 믿는다. 특히 코로나19로 온 국민, 아니 온 세계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기쁨의 실력이야말로 말로 가장 현실적이고 절실한 실력이 아닐까? **E&C**



삼의공영

기계/배관, 전기/계측분야 설계 전문회사

삼의공영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선택시티II 건물에 본사를 둔 제1호 협력회사이며

44명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김천 지사는

김천혁신도시 울곡동 메타폴리스에 원자력 전담

기계/배관분야 42명이 근무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본부(고리,영광,월성,울진) 현장에

17명이 가동원전 지원 근무 중이다.

삼의공영(대표 변희선 회장)은 국민 행복증진에 기여하는 “인간, 환경, 안전, 기술의 융화”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1980년 9월 설립하여 2020년도 40주년을 맞이하였다.

한국전력기술과는 1980년 인연을 맺은 후 고리원자력발전소 3,4호기 현장설계 업무를 시작으로 국내 원자력과 화력, 복합, 열병합발전소 설계뿐만 아니라 UAE원전 및 요르단 연구용 원자로, 터키(TUFANBEYL)와 모로코 석탄발전소 등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해외 원자력, 화력 발전소 설계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변희선 회장



이를 통해 산업, 화학, 유화, 탈황, 폐수처리 및 지역난방 설비 설계 등 산업 전반의 엔지니어링 업무에 참여, 다양한 경험과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이름을 알렸다.

특히, 현재 수행중 신고리 5,6호기 비안전등급건물(터빈, 복합, 옥외설비)에 「소방청 고시

제2017-1호, 2017.07.26」 소방배관 내진설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함으로써 완벽한 설계결과물을 얻고자 한수원, 감리, M259 공급자, 시공사, 시운전, 한국전력기술 등을 포함하여 매월 “WAR ROOM” 회의를 삼의공영이 주관하고 3D 모델을 통하여 타 시설물과의 간섭해결, 지진분리장치, 지진분리이음쇠, 버팀대 및 고정장치 등 설계 수용성 검토와 원자력법과 소방법을 동시에 충족하려 노력중이다.

또한, 최고의 기술을 요구하는 가동원전 잠재 현안 화재방호 통합설계 기술용역 및 원전본부별 비상대응거점 신축 배관설계도 진행하고 있다. 지금은 엔지니어링 설계부분에만 103여명의 직원을 보유한 ‘1등 기업’이다.

변희선 회장은 창업 이후 40년 동안 ‘제1호 특수설계업체’라는 책임감으로 고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힘써 왔으며, 특히 “배관설계 분야에서는 어느 기업들과 비교해도 앞서 있다”고 자신한다.



김천에 지사를 개소한 것 역시 전통있는 기업으로서 공기업 지방이전 정책에 동참하겠다는 각오에서다. 또한, 김천 지역경제 활성화와 김천소재 경북보건대학교와 산학협력 협약서를 체결하고 청년 일자리 ONE-STOP 인력매칭사업을 통한 우수인력을 채용 활용하고 있다. 해당 업계에서 가장 오래된 업력을 지닌 기업이라면 마땅히 인재를 육성해 관련 산업을 성장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광성 사장은 “어떤 일이든 해 낼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삼의공영을 ‘스마트 워크 플레이스’로 만들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삼의공영 재산은 ‘사람’이고 회사 자체가 ‘연구소’라며 한국전력기술은 물론 한수원 기계/계전분야 유자격 업체로 건설뿐 아니라 가동 원전에서도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0년 한 해 동안 흘린 땀방울이 2021년에는 더 큰 결실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E&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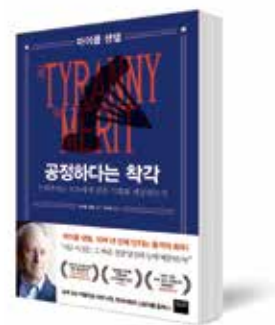
[특허내역]

1. 핵연료 피복관 산화층의 두께 측정장비 교정용 와전류 탐상표준봉 및 교체 지그
(특허번호 : 제0704752호) [2015.11.04]
2. 레이저 용접장치용 용접봉 및 이를 이용한 핵연료봉지지격자의 내부격자간 레이저 용접장치
(특허번호 : 제0906719호) [2015.11.04]
3. 디지털입력 감지에 대한 지연 설정이 가능한 디지털 계전기 및 디지털 계전기의 입력신호 처리방법
(특허번호 : 제1037000호) [2020.01.10]
4. 원전 분기배관의 음향공진 방지 방법
(특허번호 : 제0811057호) [2020.02.19]
5. 응축수 혼합 저장탱크를 갖는 열충격 방지장치
(특허번호 : 제1278906호) [2020.02.19]
6. 원자력발전소용 보조전원공급장치 및 그 보조전원공급방법
(특허번호 : 제1281351호) [2020.02.19]
7. 격납건물의 냉각수 스프레이 시스템
(특허번호 : 제1467212호) [2020.02.20]

교양

공정하다는 착각 :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

마이클 샌델 지음 | 2020년 12월 1일 출간 | 18,000원



기울어진
사회구조 이면에 도사린
‘능력주의의 덫’을 해제하다
능력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사회, 우리는 그런 사회를
계속 꿈꿔왔다. 노력해서 자신
을 갈고 닦고, 그런 나에게 기회
가 생기는 그런 사회, 하지만 저

자는 능력주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한다. 세상은 이제 더 이상
능력주의를 완벽하게 실천할 수 없고, 그 속에 담긴 불편한 진
실에 주목한다. 과도해진 능력위주로 인한 도덕 판단력 결여,
능력과 성과로 인해 생겨난 계급 세습화, 점차 무자비하게 진
화하는 능력주의의 민낯을 마이클 샌델이 해체한다.

자기개발

관종의 조건

임흥택 지음 | 2020년 12월 10일 출간 | 값 16,200원



이제 관심받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한다
관심 경쟁의 장이 시작됐다.
시대를 제대로 못 읽어 그저 묵
묵히 일하는 것만으로 승진이
될거라 믿는 조직원에게는 큰
보상이 따라오지 않는다. SNS
에 올릴 만한 것이 아니면 쳐다

보지도 않는 시대다. 이제 우리는 부정적 의미의 ‘관종’을 뒤
집어야 한다. 자극적 행동을 일삼고 타인 일상에 끼어드는
게 아니라, 남과 다름을 무기삼고 다재다능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고전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나인홀드 니버 지음 | 2017년 7월 1일 출간 | 15,000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출애굽기-
개인과 집단의 행동양태를 분
석하고 사회적 정의를 수립하
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인문서.
이 책은 개인적으로 도덕적인
사람들도 사회내의 어느 집단
에 속하면 집단적 이기주의자

로 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타인의 이익을 배려할 수 있지만, 사회는 종종 민
족적-계급적-인종적 충동이나 집단적 이기심을 준다. 사회조
직의 테두리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와 역학관계를 구별하거
나 인식하지 못하는 점을 니버는 지적한다. 빌 클린턴을 비롯
한 수많은 정치지도자들에게 영향을 준 명저.

철학

게으름에 대한 찬양

버트란드 러셀 지음 | 2005년 4월 25일 출간 | 값 8,000원



행복해지려면 게을러져라
산업사회가 낳은 노동으로부
터 소외를 통렬하게 비판하는
러셀의 대표적 에세이로 70여
년의 시간차를 뛰어넘는 통찰
과 예지가 돋보인다. 이 책에서
러셀은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과 달리 인간의 진

정한 자유와 주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오히려 여가가 필요하
다고 주장한다. 러셀의 역설적 주장이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
가오는 것은 그의 이야기가 ‘우리의 어제’가 아니라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다큐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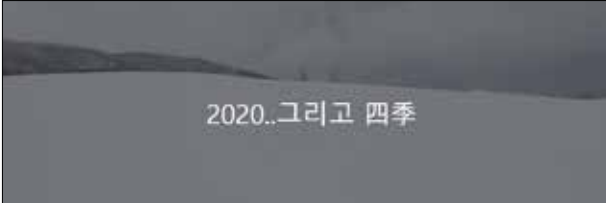
전쟁없는 세상을 위해 전쟁을 연구합니다

시의성 있는 이슈를 통해 과거 전쟁사를 돌아보고, 전쟁 없
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쟁을 연구한다는 의도로 YTN이 기
획하고 제작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다. 진행은 과거 국방
TV에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역사학자 김용한과 군
사전문기자 이세환, 방송인 허준이 다시 모여 진행한다. 현재
이슈와 관련된 역사적 사례를 찾아 뉴스형식으로 보여준다.

전시

2020..그리고 四季

카카오 비대면 갤러리, 관람시간 20분



여러분은 올 한 해 사계절을 제대로 만끽하셨습니까?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는 코로나19. 우리가 늘 친근
하게 애용해 온 엘리베이터와 지하철은 왠지 모를 두려움의
공간이 되었고, 힘이 되어 주었던 친구들은 원격수업, 재택근
무,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이유로 자주 볼 수 없게 되었다. 봄
꽃의 싱그러움, 피서지에서의 여유로움, 단풍으로 물든 산, 함
박눈 쌓인 하얀 설원, 계절은 멈추는 법이 없다. 사진으로나마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했던 사계절을 함께 느껴보시길 바란다.

영화

벵가드

2020년 12월 30일 개봉 | 당계례 감독 | 108분



성룡의 2020년
마지막 미션이 시작된다!
탕환팅(성룡)이 이끄는 국제
민간 경호업체 벵가드. 새해
축제가 한창인 런던 한복판
에서 VIP 고객이 범죄조직에
납치되고 벵가드는 그를 구출
하는데 성공한다. 이에 분노
한 범죄조직은 VIP 고객의 딸
을 새로운 타깃으로 삼고, 그

들보다 아프리카에 있는 그녀를 찾아 보호하는 과정에서 벵
가드의 팀원 레이전위(양양)가 위험에 처한다. 두바이로 넘어
가 구출작전을 펼치던 벵가드는 거대한 배후 세력의 음모와
마주하게 되는데...

드라마

퀸스갬빗

2020 | 넷플릭스 등 방영 중



전부를 잃어야
이길 수 있다면,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가?
<퀸스갬빗>은 사고로 부모
를 잃고 혼자 남겨진 체스
천재 소녀의 여정을 따라간
다. 체스에 눈을 뜬 보육원
시절부터 세계 무대 진출까
지. 소녀는 이기고 싶다는
열망 하나로 버틴다.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 윌터 테비스의 소설을 각색한 작품으로
획기적인 원작 내용과 긴장감을 더한 스토리가 시선을 사로잡
는다. 안야 테일러조이의 열연에 높은 점수를 준다.

독자와의 수다 사보 뒷풀이

글을 읽으면 지은이의 나이, 성별, 전공을 가늠할 때가 있습니다. 교열원칙 ‘적의 것은 제거하라’에서 ‘적’, ‘의’, ‘것’ 글자로 원고가 가득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와 같은 번사체 표현은 고령자 글입니다. 중년 글은 짜임새는 좋지만 내용이 근엄한 편입니다. 젊은이 글은 발랄하고 생기롭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는 튀지 않으려는 무난함을 선호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반에서 키 순서로 학생 번호 매길 때 ‘76’번이면 학급당 학생이 80명 이상이겠지요. 다수에 묻혀 자기 생각, 감정을 표현해 본 적이 별로 없는 세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숨기고 싶을 때 글에서 객관적 정보만 나열하거나, 피동형을 자주 구사하거나, 형이상학적 관념어를 많이 집어넣습니다. 자신이 드러나면 불안한 세대~. 인간은 자신이 속한 시대와 문화를 벗어나기 참 어려운가 봅니다. 그래서 한 시대가 드리우는 잔영이 나이트처럼 새겨지거나 지문처럼 남는 게 또한 문제입니다.

독자 참여 안내

“나도 한 번 기자가 되어~~~”

KEPCO E&C Family 지역탐방, 맛집여행, ‘이 달의 한기인’, ‘Shall we meet?’ 칼럼에서 자신이 기자, 작가가 되어 사보 칼럼을 완성해 보고픈 분을 초대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호에 실릴 김천시립박물관이나 삼성암을 방문하여 관찰기를 써보거나, 본사를 중심으로 1시간 거리 반경 이내의 맛있는 레스토랑을 찾아서 소개하거나, 인터뷰어로서 흥미로운 주변 인물을 취재해 보는 일입니다. 자신이 원하는대로 칼럼을 기획, 취재, 원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보제작팀은 신청자에게 관련 비용을 협의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탐방과 맛집여행은 동행인 2인을 포함하여 경비 지원합니다. 사보발행 이후 작성 원고와 촬영 사진은 별도 비용을 지급합니다. 2월 8일까지 memolee7@kepco-enc.com 또는 010-3355-7107로 연락 주세요. 좋은 경험, 한번 도전해 보세요!

더불어 이번 사보를 읽고 느꼈던 점이나 추천하고 싶은 독자의견을 1월 30일까지 rdh@kepco-enc.com으로 보내주시면 5인을 추첨하여 작은 선물을 드립니다.



2021년도 사보에 게재할 독자참여 사진 한컷을 모집합니다. 자신의 스마트폰, 디카에 저장된 사진 중 정말 나만보기 아깝다는 사진을 메일(sky03tree@kepco-enc.com)로 2월 8일까지 보내주세요. 선정 작품은 소정의 사진료를 지급합니다.

당첨자 발표

◆ 돌발퀴즈 : 도서문화상품권 2만원

- 강병주 (인사노무처 대리)
- 김경완 (전기계측기술실 대리)
- 박미옥 (원자로안전점검실 차장)
- 박진남 (미래성장신사업그룹 사원)
- 임재성 (SI사업그룹 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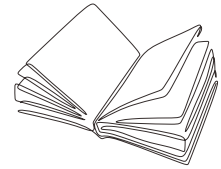
◆ 이달의 한컷! : 커피쿠폰 1만원

- 박화순 (글로벌마케팅실 부장)
- 이진상 (전기계측기술실 부장)
- 남기상 (디지털엔지니어링실 부장)
- 이상록 (기계배관기술실 부장)
- 임유진 (사국내건설사업그룹 사원)

◆ 독자의견 : 도서문화상품권 3만원

- 최재희 (전기계측기술실 대리)
- 권영만 (원전안전센터 부장)
- 김경수 (기계배관기술실 사원)
- 유광열 (사외독자)
- 강호우 (사외독자)

지난호 사보를 읽고(독자의견)



- 코로나로 인해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고 있는데, 세계도시탐방 쿠바편을 보며 잠시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사보를 통해 간접경험을 할 수 있으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전기계측기술실 최재희 대리)



- 명사칼럼 ‘코로나 시대의 성찰’ 기사를 통해 코로나19는 언제든지 예상치 못한 것에서 다시 쉽게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포스트 코로나를 기대하기보다 위드(with) 코로나 속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반영해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한국전력기술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 일상으로 돌아가 우리가 올해 초 계획했던 일들을 남은 기간 동안 멋지게 해낼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사외독자 강호우)



- 이번 사보는 우리회사 영양사 박슬아님의 사내식당의 식단에 관하여 다루어 그 부분을 흥미있게 읽었습니다. 평소 점심과 저녁시간만 되면 ‘오늘은 뭐가 나올까?’라는 생각만 가지고 사내식당에 가서 점심과 저녁을 먹곤했지만 영양사분들께서 평소 어떤 식으로 식단에 신경을 써주고 계신지 사보에서 설명 해주니 식사 할 때마다 오늘 식단의 영양조합에 대해 생각하며 식사가 한층 더 맛있게 느껴지고 잔반을 이전보다 안 남기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보에 회사 업무 뿐만 아니라 회사에 대한 다양한 내용에 대해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계배관기술실 김경수 사원)

- 가족탐방에 실린 동료 직원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젊은 시절의 추억을 돌아볼 수 있었고, 동료 직원들이 현재를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소소한 일상 생활을 읽으면서 즐거움과 제 생활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소중한 동료 직원들의 멋진 소개를 기대합니다. (원전안전센터 권영만 부장)



-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계측제어설계그룹 이영준 부장 이야기 잘보았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인해 직원들이 그 지역에 잘 정착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홀로 근무를 택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곳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방근무에 대한 열정이 무엇인지 이영준 부장의 사례를 통해 잘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장미빛 전망도 할 필요 없지만, 그렇다고 편견과 선입견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점 잘 각인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의 한 일환으로 일한다는 자부심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중 있고 중책을 맡는다는 점에서 지방근무도 나름 매력있고 자기개발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 해봅니다. (사외독자 유광열)